



“자선활동 전념”...빌 게이츠 ‘아름다운 퇴장’ 8



최태원 ‘기업가치 극대화’ 승부수 10

true friend 한국투자 증권

BanKIS®

※투자 전 설명 청취 ※원금손실 유의

코스피(19일 전주 대비)	코스닥
1771.44 (-268.67P)	524.00 (-118.72P)
환율(달러당 원화)	금리(국고채 3년물)
1219.30 (+27원)	1.149% (+0.071%P)

한번도 가보지 않은 ‘제로금리 시대’

韓銀 이번주 금리인하 유력...물가 상승률 감안 사실상 ‘제로’ 월세 전환으로 전세 물량 급감...재정 부족에 세금 늘 가능성

스페셜 리포트

“메르스, 사스와는 비교도 안 되는 비상 경제 시국입니다. 정부는 과거에 하지 않았던 대책을, 전혀 없는 대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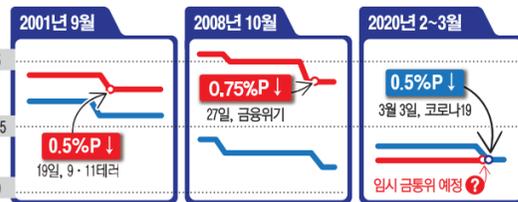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세계보건기구(WTO)의 ‘코로나19 팬데믹 선언’에 글로벌 증시와 국내 금융시장이 요동치자, 경제 수장들을 모아 놓고 이같이 주문했다. 강력한 풀리시믹스(정책조합)를 통해 우리 경제의 타격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 추가 유동성 공급에 신중하

던 한국은행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 개최에 대해 논의 중”이라며 조기 금리인하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련기사 3면 현재 기준금리는 1.25%다. 0.25%포인트만 내려도 소비자물가 상승률(1.1%)을 고려하면 실질 기준금리는 사실상 ‘제로’다. 금리가 0%대로 떨어지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할까? 제로 금리가 되면 현재의 소득 가치가 큰 폭으로 상승한다. 마이너스 금리를 채택 중인 유럽은 빌린 돈(대출 원금)을 깎아주고, 예금에 수수료를 붙인다. 덴마크 위스케은행은 지난해 8월 세계

한국은행의 임시의회의 통한 금리인하 사례



※출처: 블룸버그·유진투자증권



최초로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리면 연간 0.5%씩 원금을 깎아 주는 마이너스 금리 대출을 출시했다. 연말에는 예금 잔액이 75만 크로네(약 1억2800만 원)를 넘는 고객에게 연 0.75%의 수수료를 받았다. 전 통적 통화정책에서 살아온 우리의 금융 상식과 정반대 상황이다. 부동산 지형도도 변한다. 당장 전세가 사라질 수 있다. 이자 수익을 얻기 힘든 임대인들이 월세 등 임대 소득으로 눈을 돌리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나라도 강력한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이 같은 징후가 보인다.

분양평가 전문회사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시세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세 공급 지수는 평균 157.7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58.8포인트나 급등했다. 2016년 11월(164.4) 이후 40개월 만의 최고치다. 수치가 높을수록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신동준 KB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임대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수도권 핵심지역 또는 개발 이슈가 있는 곳만 부동산 가격이 유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적 관점에서는 ‘바닥 날 곳간’을 걱정해야 한다. 현금을 보유하려는 거액 자산가들이 늘기 때문이다. 세수가 부족하면 정부는 지출을 줄이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삭감한다. 상속이나 증여세 등을 통해 부족분을 메울 가능성도 있다. 생활은 더 팍팍해지는데, 세금은 더 많아진다는 얘기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도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급박해 1분기 역성장과 추경 효과 반감 등을 고려하면 임시 금통위에서 제로 금리에 진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세계 경제 ‘R의 공포’

글로벌IB, 성장 전망 줄하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글로벌 팬데믹(panemic·대유행)’ 단계에 진입하면서 세계 경제에도 비상이 걸렸다. 주요 투자·연구기관들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크게는 1.0%포인트(P) 이상 하향 조정했다. ▶관련기사 4면

15일 블룸버그가 글로벌 투자은행(IB)과 경제연구소 등의 전망을 집계한 자료를 보면, 몬트리올 은행 자회사인 BMO 캐피탈은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달 2.7%에서 2.0%로 0.7%P 하향 조정했다. 독일 투자은행 베렌버그도 2.3%에서 1.8%로 내렸다. 영국의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탈이코노믹스는 기존 3.0%에서 2.0%로,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2.5%에서 1.7%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네덜란드계 다국적 금융사 라보뱅크는 10일 세계 경제 성장률을 1.6%로 전망하면서 “경기 침체에 돌입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고 밝혔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는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인 1.0%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성장률이 2.5%를 밑돌면 경기 침체로 간주한다.

특히 전망치 중 상당수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1일(스위스 현지시간) 코로나19를 팬데믹으로 선언하기 이전에 나왔다. 전망치가 추가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다.

최근 유럽·중동·미국의 확진자 증가세를 고려하면 올해 경제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가까워진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인적 끊긴 대구 동성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대구·경북 일부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15일 대구의 중심가인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 광장이 휴일임에도 텅 비어 있다. 뉴스시스

대구·경북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첫 선포

(경산·청도·봉화)

문재인 대통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15일 대구시 전체와 경북 경산·청도·봉화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자연재해가 아닌 감염병으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와대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의 건의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 대통령이 특별재난지역 선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5·8·14면 대구시 전체가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됐으며 경북에서는 경산·청도·봉화 지역이 포함됐다. 경북 지역의 경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만 포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자연·사회 재해를 당한 지역에서 지자체 능력만으로 수습하기 곤란해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구비 50%·주민 생계 등 지원 전기·통신·가스요금 감면 혜택 피해 상황 따라 추가지정도 검토

경우가 그 대상이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각 지역대책본부장인 시·도지사가 요청하고 중대본 본부장인 총리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하면 대통령의 재가로 이뤄진다.

앞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했고, 정 총리가 선포 재가를 문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정부는 지역별 코로나19 피해 상황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산·청도·봉화는 앞으로 피해 복구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피해 상황에 맞게 전체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받고,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된다.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문 대통령이 이들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대구·경북에 집중된 만큼 향후 중앙정부가 이 지역에 더욱 강력한 지원책을 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대구·경북은 지난달 18일 신천지대구교회 여성 신도(31번째 확진환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15일 오전 0시까지 7188명(대구 6031명·경북 1157명)의 확진자를 기록했다. 이는 전체 확진자(8162명)의 88.1%에 달하는 수치다. 이 지역의 사망자는 70명(대구 57명·경북 13명)으로 전체(75명)의 93.3%를 차지한다. 다만 다행히도 연일 수백 명씩 증가하던 두 지역의 추가 확진자 수는 12일부터 두 자릿수를 지속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총선 D-30...코로나 민심은 누구 편

내달 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총선은 의회 권력을 재편하는 의미를 넘어 반환점을 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2022년 대선에 향한 ‘전조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 여야 모두 사활을 걸고 필승의 각오를 다지고 있다. ▶관련기사 6면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 미래통합당 등 각당은 공천 작업을 대부분 마무리하며 본격적인 ‘결전 모드’에 돌입했다. 각 정당이 공천한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27일 이후 6일째인 다음 달 2일부터 시작된다. 후보자들은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2주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8세 이상 유권자들은 재외투표(4월 1~6일), 사전투표(4월 10~11일), 총선 당일(4월 15일) 투표 등을 통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선거가 다가올수록 유권자를 잡기 위한 여야의 경쟁은 격화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최소 130석 이상 최대 140석 이상을 이번 총선에서 얻어 ‘원내 1당’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범진보 정치세력을 아울러 원내 과반 의석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20대 국회의 ‘여소야대’ 지형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주요일정

3월 25일까지	예비후보자등록 마감
26~27일	후보자등록 신청
4월 1~6일	재외투표(오전 8시~오후 5시)
2일	선거운동기간개시일
3일	선거인명부 확정
5일 까지	거소투표용지 발송 투표안내문 발송
7~10일	선상투표
10~11일	사전투표(오전 6시~오후 6시)
15일(선거일)	투표(오전 6시~오후 6시)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범진보 진영 연대를 통해 사실상 ‘여대야소’로 바뀐다는 것이다.

보수 야권을 끌어모아 탄생한 통합당은 원내 과반을 확보, 문재인 정부의 국정예제동을 거는 동시에 2022년 정권 탈환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국면에서 씌워진 ‘적폐’ 프레임이 벗고, 다가오는 대선에서 여당과 제대로 된 대결을 펼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연연동행 비례대표제, 공천에 대한 평가 등이 승패의 변수가 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유권자의 20~30%로 추정되는 ‘무당층’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주목된다. 유충현 기자 lamuzhi@



· 사회적 거리두기 · 함께 나누기
· 서로 배려하기 · 바이러스 바로 알기

생활고 없도록...

중소 브랜드 매장관리자 대상
1인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경영난 없도록...

2000여 중소 협력사 대상
8월까지 납품대금 조기 지급

3000명에 30억... 정지선의 '통 큰 나눔'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고통 분담 나선 현대백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백화점과 아울렛 입점 중소기업을 돕기 위해 통 큰 지원에 나섰다.

현대백화점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 매장 관리 매니저에게 3월과 4월 두 달간 '코로나19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대백화점은 지난달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500억 원 규모의 무이자 대출을 유통업계 최초로 마련한 데 이어 이번에는 매출 감소로 수익이 줄어든 매장 관리 매니저들에게 직접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유통업체가 월 수익이 줄어든 매장 관리 매니저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중소기업에 대상으로 앞으로 5개월간 납품 대금을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번 '코로나19 극복 지원금' 지급은 정지선 회장이 직접 제안해 이뤄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정 회장은 최근 '코로나19' 관련 임원회의 자리에서 "우리도 코로나19 여파로 단기간의 적자가 우려되지만

현대백화점 코로나19 극복 지원책

- 중소협력사에 업계 최초 500억 원 규모 무이자 대출
- 2개월간 중소기업 매장관리자에 1인당 월 100만 원씩 지급
- 중소협력사에 납품대금 20일 앞당겨 매월 10일 지급

동반자인 협력사와 매장 매니저들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면서 "이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지원금 지급 대상은 현대백화점과 현대 아울렛 21개 전 점포에 입점한 중소기업 의류·잡화·리빙 브랜드 매장 관리 매니저

가운데 2월과 3월에 월 수익이 급감한 매니저들이다. 현대백화점은 매니저 1명당 월 100만 원씩 지원하며, 상황이 좋지 않은 매니저에겐 두 달 연속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대기업 계열 브랜드의 매장 관리 매니저나 매월 고정급을 받는 매니저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통상 중소기업 브랜드 매장 관리 매니저들은 각 브랜드 본사와 계약을 맺고 백화점 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 부분을 브랜드 본사로부터 수수료 형태로 지급받는다. 매장 내 판매사원 급여와 택배·수선비 등 매장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을 매니저가 모두 부담하는 구조여서, 최근처럼 매출이 줄어들면 매니저 본인 수익이 고스란히 줄어들게 된다.

현대백화점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백화점 매출이 좋지 않다 보니 월 수익이 100만 원 미만으로 떨어진 매니저가 2월에만 약 16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3월 수익 기준으로 4월에 대상자를 추가 선정하면 전체 지원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월 들어서도 상황이 호전되지 않고 있어 두 달 연속으로 지원금을 수령

하는 매니저까지 포함하면 두 달간 약 3000여 명에게 총 30억 원 이상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대백화점은 2000여 중소기업 협력사를 대상으로 4-8월까지 5개월간 매월 1600억 원 규모의 납품 대금을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기존 매월 30일에 지급하던 것을 20일 앞당겨 매월 10일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현대백화점은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협력사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상생협력 기금' 500억 원을 긴급 조성해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다. 자금이 필요한 협력사의 경우 업체별로 최대 1억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현재까지 150여 개 협력사에 무이자 대출을 지원했다. 회사 측은 심사가 완료되면 약 900여 개 협력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현대백화점그룹은 '코로나19' 피해를 인해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대구 지역의 감염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 긴급 지원금 10억 원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하기도 했다.

남주현 기자 jooh@

대한상의·감정원의 배려... "우리도 착한 임대인"

건물 입주 소상공인 대상 임대료 최대 6개월간 50% 감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가 확산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매출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상의회관 입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을 통해 서울 세종대로 대한상공회의소 회관에 입주한 11개의 소상공인은 3월부터 3개월간 임대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앞서 대한상의는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책반을 가동, 기업별로 357건을 접수받았으며, '추가경정예산 확대' '기준금리 인하' 등 8대 분야 30개 건의과제를 정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또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돕기 위해 대구 지역에 마스크 및 손 세정제를 지원하고 쪽방촌 등 취약계층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코로나19 유관 기관에도 격려 물품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힘을 보태고 싶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게 됐다"며 "안양과전, 포항 등 일부 지역상의가 이미 참여하고 있지만, 착한 임대인 운동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코로나19 사태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서 전국 지역상의에 동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감정원도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김학규 감정원장

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감정원 사옥 임차인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부산 등 4개 지사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이 대상이며 중소기업은 이달부터 8월까지 임대료의 30%, 소상공인은 2월부터 7월

까지 50%를 각각 6개월간 감면해준다.

김학규 감정원장은 "공공기관으로서 위기를 함께 극복하고자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중소 임차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정세균 국무총리는 13일 대구 중구의 대구남부소상공인지원센터를 찾아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의 정책자금 신청·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소상공인들을 만나 매출 감소와 자금난 등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 운동'을 언급,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들에게 매우 감사하다"며 "정부도 임대료 인하 부담을 함께해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따뜻한 마음이 모여
봄이 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환자 곁으로 향하는 의료인들의 발걸음,
달려와 방역을 서두르는 믿음직한 두 손,
감싸주고 안아주는 진심 어린 눈빛.

모두의 마음이 모이면, 곧 봄이 됩니다.

현대백화점그룹

“경제 살리는 게 급선무” vs “부동산 거품 더 커질 것”

제로금리 놓고 ‘갑론을박’

‘코로나19’ 확산으로 침체된 경기를 자극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신중론자들은 강력한 규제에도 좀체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에 거품만 더 낄 거라고 우려한다. 반면 긍정론자들은 낮은 경제성장률을 고려하면 전방위적인 부동산 공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코로나발 수요둔화와 공급망 훼손



출처: 중국 통계청, SK증권

◇“코로나 종식 뒤 집값 거품 가시화되면 소폭 인상” =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예상을 깨고 금리를 동결한 이유 중 하나는 집값 때문이었다. 강력한 규제에도 좀체 잡히지 않는 부동산 시장을 들쭉날쭉할 수 있다는 우려다.

실제 유럽은 극약 처방 이후 부동산 가격이 커지고 있다. 2014년 유럽중앙은행(ECB)이 마이너스 금리를 도입한 이후 5년간 포르투갈과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아일랜드 등 일부 유럽의 집값은 40% 넘게 뛰었다. 스페인 마드리드, 스웨덴 스톡홀름과 암스테르담 등 주요 도시의 부동산 가격도 30% 상승했다.

하지만 임금상승 속도는 발끝도 못 따라간다. 유럽주변연맹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유로존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2.7% 오르는 데 그쳤다.

문제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거품이 꺼졌을 때다. 일본은 1980년대 확장적 통화·

긍정론

소비심리 위축 수출까지 감소 장기화되면 제조업도 큰 타격 줄도산 막으려면 금리 내려야

재정정책을 단행했다. 기업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고, 금융사들도 고수익·고위험 상품을 팔았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자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겨났다. 싼값에 통제를 하고 자원을 배분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로 1991년 부동산 가격이 고꾸라지자, 통화정책의 문제점들이 수면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미숙한 뒷북 대응과 금융기관의

부실화, 자금 중개 기능 상실 등이 불러온 ‘잃어버린 20년’의 시작이다.

임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현재 경기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감안할 때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편익보다는 비용이 더 클 것”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된 뒤 주택시장 버블 조짐이 가시화될 경우 금리를 소폭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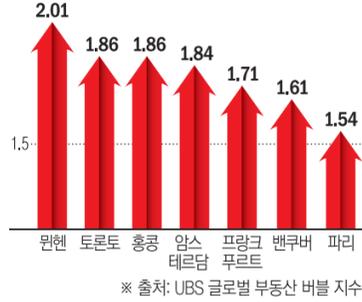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 1%대로 ‘뚝’... “경제부터 살려야” = 반면 긍정론자들은 경제부터 살리는 게 급선무라고 말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세계 투자은행·경제연구소 43곳의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월 기준 1.8%다. 전월 집계보다 0.4%포인트(p) 낮아졌다. 이 전망치가 2% 밑으로 떨어진 건 1956년(0.7%), 1980년(-1.7%), 1998년(-5.1%), 2009년(0.8%) 등 경제·금융위기를 겪은 때다.

‘코로나19’는 소비심리를 꽂꽂 떨어볼게 만든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소비자신뢰지수는 한 달 전보다 0.4p 떨어진 99.6을 기록했

부동산 과열 상위 7개 도시

※ 1.5 이상일 경우 단순 고평가를 넘어 거품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



출처: UBS 글로벌 부동산 버블 지수

신중론

금리 인하, 편익보다 비용 커 코로나 종식 뒤 주택시장 불안 금리 소폭 올리는 것이 바람직

다. 비교 대상 30개국 가운데 낙폭이 가장 크다. 기업 심리도 예외는 아니다. 국내 확산 속도가 빨라진 지난달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2% 감소했다.

김성태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전망실장은 “코로나19가 두세 달 안에 진정된다면 제조업은 금방 회복되겠지만, 그 이상 길어진다면 생산에 타격을 끼칠 수 있다”며 “이로 인해 경제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업 줄도산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수요가 둔화되고, 공급망이 훼손된 데다, 국제유가까지 급락하면서 기대 인플레이션(불가상승률)이 훼손됐기 때문이다.

전염병 발생국이자, 피해가 가장 큰 중국은 이런 우려들이 진행 중이다. 2월 중국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전월 대비 14.3p 떨어진 35.7로 집계됐다. 시장 예상치인 45를 훨씬 밑도는 수치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였던 2008년 11월 38.8과 비교해도 낫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경제학)는 “극심한 수요 감소와 생산 차질로 인해 기업이나 개인의 파산 위험이 커지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재정을 더 늘리되 일시적인 감세, 자금지원 등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금융업계 파장은

보험사 ‘역마진 쇼크’ 우려

#2030년 4월, 보험금 지출 규모가 자산운용 수익률을 초과하는 역마진으로 적자가 발생하는 생보사가 속출한다. 시중금리보다 높은 공시이율을 앞세워 공격적으로 영업을 해왔던 00생명이 가장 먼저 업무정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총 7개 생보사가 업무정지를 받거나 자발적인 법정관리 신청으로 파산처리 됐다.

보험사, 금리 위험 대응 상품 등 자산구성 재조정해야 생존할 것 금융당국 ‘상품 규제 완화’ 절실

1997년 일본의 상황을 2030년 한국 보험시장에 대입했을 때 나오는 시나리오다. 일본은 1997년 낮산생명을 시작으로 8개 생명보험사와 2개 손해보험사가 파산했다. 저금리와 경기 침체에 이차 역마진이 확대되면서 투자수익과 영업이익을 통한 역마진 보전이 한계에 달하면서다. 20~30년 전 일본 보험시장을 꼭 닮아 있는 한국 보험시장에서도 가능성이 없는 얘기는 아니다.

당시 일본은 갑작스러운 거품 붕괴였다면 우리는 예측 가능한 위기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로 제로금리 시계가 빨라진 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운용수익률 하락은 가속화되고 있다. 2010년대 초반만 해도 연 5%가 넘었던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현재 연 1%대에 머무르고 있고, 최근 3년물은 0%대에 진입하기도 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생보사들의 운용자산이익률은 3.5%로, 보험료 평균 적립이율인 4.25%보다 한참 낮다. 현재 금리 추세를 감안하면 내년 자산운용 수익률이 2%대 중반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밖에도 당국의 소비자보호 기조로 인한 보험료 인상 억제, 규제 강화로 인해 대내외 약재가 산적해 있는 상황이다.

서지연 기자 sij@

생보사 운용자산이익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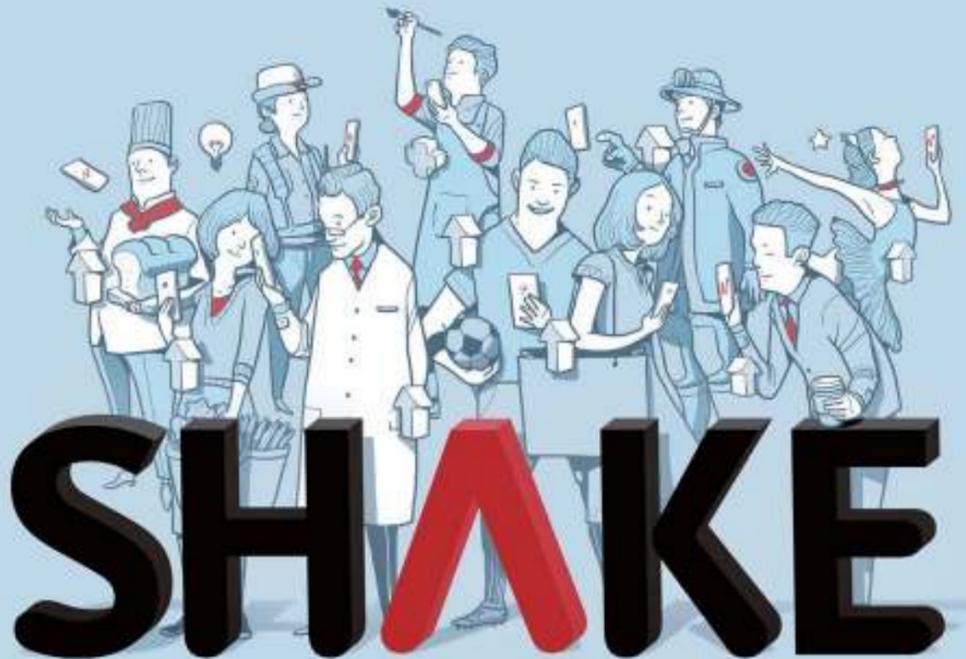
출처: 생명보험협회 공시실

전문가들은 보장성 상품을 늘리고 위험자산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보험연구원 김해식 실장은 “이차 역마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자산운용과 함께 상품 구성을 재조정해야 하나, 당시 일본의 파산 보험사들은 이러한 자산과 부채의 종합적 대응이 부족했거나 시기적으로 늦었다”며 “저금리 환경에서 보험사들은 금리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상품을 구성하고 자산부채종합관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자산 구성을 조정해야 생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의 지원도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일본 보험사들의 생존에는 금융당국의 노력도 컸다. 위험률에 대해 충분한 마진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품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 경우에는 저금리로 역마진 손실을 겪더라도 안정적인 영업을 통해 부실을 메울 수 있는 체력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모두를 위한 SK증권 로보어드바이저



SHAKE는 고도화된 알고리즘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객 맞춤 포트폴리오를 제공하는 로보어드바이저입니다. {by 퀴터백}

※ SK증권은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에게는 충분히 그러한 설명을 듣고, 투자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은 원금손실 위험에 발생할 수 있고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스타트업 투자수익률 (주식) 0.15% + 1천원 ~ 0.05% + 1백만원 (거래금액별 차등, 세부 수수료율은 당사 홈페이지 참조)
 ※ 로보어드바이저가 고객에게 맞는 투자 또는 수익달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1차 테스트베드 통과
 ※ 테스트베드 통과가 해당 알고리즘의 품질이나 수익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고객문의센터 1599-8245



세계 증시 52일 새 '시총 2京' 증발... 한국 GDP 10배

86개국 중 82개국 하락... 33개국은 20% 이상 떨어져
 '유가 폭락' 러시아 -37% 최대... 伊 26%·佛 22% 감소
 국내 100대 상장사, 전자산업 중심 시총 174兆 줄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세계 증시의 시가총액이 52일 만에 1경9000조 원 넘게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10배에 달하는 규모다.

15일 블룸버그가 86개국 증시의 시총을 집계한 결과, 이달 12일(현지시간) 기준 해당 국가들의 증시 시총은 72조4869억 달러(약 8경8232조 원)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 고점인 1월 20일(89조 1565억 달러)보다 16조6696억 달러(18.7%) 감소한 수준이다. 원화로 환산하면 52일 만에 1경9475조 원이 증발한 셈이다. 사라진 시총은 2018년 기준 한국 국내총생산(GDP)인 1893조 원의 10.3배에

달한다.

통상 주가가 최근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하면, 추세적 하락을 의미하는 '악세장'에 진입한 것으로 해석한다. 세계 증시는 2주 전인 지난달 27일까지도 전 고점 대비 6.73%의 낙폭을 기록했지만, 3월 들어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면서 가파르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기간 증시가 하락한 국가는 82개국이고, 이중 33개국은 20% 이상 낙폭을 보이기도 했다. 상승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했다.

국가별로는 러시아 증시 시총이 8053억 달러에서 5064억 달러로 감소해 37.12%(2989억 달러) 급감했다. 코로나19 여파

러시아	-37.12	이탈리아	-25.58
콜롬비아	-35.92	영국	-26.08
노르웨이	-35.40	독일	-20.26
브라질	-34.98	프랑스	-22.24
슬로바키아	-34.60	한국	-22.09
호주	-33.14	일본	-19.71
태국	-32.54	미국	-18.84
그리스	-31.75	중국	-4.22

※ 출처: 블룸버그

에 더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유가 인하 경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락하면서 악재가 겹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콜롬비아(-35.92%), 노르웨이(-35.40%), 브라질(-34.98%), 슬로바키아(-34.60%), 호주(-33.14%), 태국(-32.54%), 그리스(-31.75%) 등 순으로 시총 감소율이 컸다.

미국 증시 시총은 6조6922억 달러(18.84%), 일본 증시는 1조2368억 달러(19.

71%) 감소했다. 반면 코로나19 발원지인 중국 시총 감소율은 3309억 달러(4.22%)로 상대적으로 작았다.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이탈리아 증시의 시총은 25.58% 줄었고 영국(-26.08%), 독일(-20.26%) 프랑스(-22.24%), 스페인(-21.90%) 등 유럽 국가들도 20%를 넘는 감소율을 기록했다.

한국 증시의 시총은 1조4768억 달러에

서 1조1505억 달러로 22.09%(3263억 달러) 줄어 감소율이 28번째였다.

100대 상장사 시총 기준으로는 174조 원이 감소해 5분의 1가량 증발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업종별 매출 상위 5개 기업씩 총 100개 상장사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이후부터 10일까지 주가와 시가총액 변동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국내 상장사 100곳의 시가총액은 1월 20일 895조 원에서 3월 10일 779조 원으로, 116조 원이 감소했다. 50일간 상장사 100개의 주가 하락폭은 평균 14.6%였다.

특히 국내 주력산업인 전자산업의 시가총액 감소가 두드러졌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조사 대상 상위 5개 업체의 시가총액은 1월20일 465조 원에서 지난 12일 379조 원으로 50여 일 만에 86조 원 상당의 가치가 떨어졌다.

이정희 기자 jih@

金·국채도 더이상 '안전지대' 아니다

코스피 3.4% 급락한 13일, 국내 금값도 1.8% 떨어져
 한 달간 靑 채권형 펀드 -25%... "도미노 금융위기 우려"

팬데믹 공포로 금융시장이 패닉에 빠졌다. 위험자산인 주식은 물론 안전자산까지 곤두박질치며 글로벌 경제 위기로 이 고개를 들고 있다.

13일 코스피지수는 3.43%(62.89포인트) 하락한 1771.44에 거래를 마쳤다. 2012년 7월 25일 1769.31포인트를 기록한 이후 8년여 만에 최저점이다. 장중에는 낙폭이 8%를 넘어서며 1680.60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전국 삼성증권 연구원은 15일 "지난 한

주간 S&P(스탠더드앳퍼어스)500은 -16.5%, 유로스톡스50은 -21.3%, 코스피200은 -12.5% 하락했다"며 "패닉장이 이어지면서 채권도 안전자산의 역할이 퇴색되고 있는데 이달 들어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서 348억 달러가 유출됐다"고 설명했다.

통상 위험자산인 주식이 급락하면 안전자산은 급등하는 등 반대 움직임을 보인다. 그러나 이날 KRX 금시장에서 금은 전일 대비 1.85% 급락한 6만2240원

에 거래를 끝냈다.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도 0.087% 오른(채권값 하락) 1.148%를 기록했다. 코로나19로 예측할 수 없는 현상이 잇따라 연출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최근 한 달간(13일 기준) 주식형 펀드 순자산은 브라질(-31.47%), 러시아(-26.83%), 일본(-25.34%), 인도(-17.66%), 베트남(-17.26%), 중국(-7.87%), 미국(-7.87%) 등 모든 국가에서 자금이 유출됐다. 채권형 역시 아시아(-25.12%), 신흥국(-10.30%), 남미(-9.89%) 등 크게 감소했다.

안전지대가 사라지면서 한계기업 도산, 나아가 일부 국가의 부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 에너지 기업들의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신용부도스와프(CDS)도 급등하고 있다. 이로 인한 금융위기가 도미노처럼 시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제만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코로나19가 생산과 소비 밸류체인 문제를 넘어 한계기업들의 부실 우려까지 연결되면서 증시는 기업 신용위험에 직면했다"며 "코스피100 기업만 봐도 37%가 고점 대비의 주가가 -60%~-45% 추락해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이라고 전했다.

증권가는 향후 방향이 통화정책과 각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달려 있다고 말한



13일 KB국민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 지수 가진 거래일보다 3.43% 하락한 1771.44를 나타내고 있다. 연합뉴스

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금융시장 불안이 극도에 달했는데 통화 및 재정 정책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며 "17~18일 예정된 FOMC회의에서 연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3월호 발매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20. 03 VOL.03

나이가 무슨 장애는
 위해 떠날 나스

생활 부동산 전문
 '투자용' 아파트

일본과 스페인 나이열차
 조차로 온 삶

정신 5주년 기념
 100가지
 신원 이벤트

장수 설계가 알려주는
 성공적인 노후생활

"안락하게 노후를 이끄는
 좋은 시니어와 함께해서"
 익숙하고 편안한
 국민가수 김상희

슈퍼리치의 숨겨진
 비사리를 발견하다

하우징의 품격을 찾다

Noble House

COVERSTORY 하우징의 품격을 찾다

PART1. 1인 가구 vs 다세대 가구 - 따로 또 같이, 가구별 하우징 트렌드
 PART2. 시니어 하우스를 가다 - 품격을 담은 노후 보금자리
 PART3. 집에 대한 고민들 - 늘어나는 세금부담 '넘겨라'
 PART4. 노후 하우스 함께 찾다 - "나이 들면 한집에서 살아가고 싶지 않다"
 PART5. 집의 가치를 높여주는 인테리어 - 클래식한 분위기로 공간을 꾸미다

더불어 숲
 다산은 시를 짓고,
 초익는 그림을 그린다

고수열전
 '약육강식' 믿을 거 없다

동화 작가 권정생(1937~2007) 선생께겐 남이 없었다. 사람은 물론, 보잘것없는 쇠뜨기풀이나 강아지 똥조차 그에겐 남이 아니었다. 모든 존재를 남으로 바라보지 않았기에, 남의 일이라는 것도 없었다. 남의 일도 내 일로 알아 남의 이름을 나의 것으로 삼았다. 가슴이 깊었던 어느 여름날, 발걸음 타들어가는 벼를 바라보던 그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저것들이 얼마나 목마를까?" 그런 중얼거림이 새 나왔고, 이런 눈, 이런 연민, 이런 삶의 태도가 어떻게 가능할까.

신라산가 만남 사랑

“제2의 인생은
 애매와 행복”
 야구 감독
 유승민

현역에선 남만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편입니다
 한지 같은 여자
 국민가수 김성희의 삶과 사랑

물은 것을 알리고
 정의롭게 살다
 변호사
 박연태

Living & Home | 모던하고 심플하게, 홈 오피스 및 아이템

세 학기가 시작되는 3월, 어떤지 워드 도전하고, 배우고 싶은 욕구가 종종 생깁니다. 따뜻한 불을 맞아 책장의 묵은 먼지도 털고 책상도 정리하면서 마음을 다져보자. 편안한 느낌을 주는 우드나 베이직 톤, 또는 블랙 포인트 아이템으로 모던하면서도 심플하게 홈 오피스를 꾸며보면 어떨까?

생생 부동산 현장 | 주택은 괜찮는데, 상가는 '덜세..'

서울 대포구, 용산구, 성동구 등 이른바 마-용-성 못지않게 핫한 지역이 있다. 강서구 마곡지구다. 마곡지구는 지금까지 드러난 호재에 최근 또 다른 호재가 겹치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마곡지구가 품은 부동산 호재와 투자 가능성을 들여다봤다.

시니어 밥상
 홈메이드 사찰음식+
 암과 성인병 예방하는
 브로콜리 활용 레시피

투자 고수와 놀자
 정성진 KB국민은행 양재PB센터 팀장
 신흥국 투자로
 저금리 넘는다

'2주 무방비' 콜센터 통해 교회·요양시설 잇따라 전파

같은 건물 85명·가족 39명... 확진자 방문 부천교회 13명 감염 23일 만에 하루 두 자릿수로... 지역전파 연결고리 차단 관건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다른 지역·시설의 산발적인 집단감염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달 말부터 콜센터 내 집단감염이 확인된 이달 10일까지 보름 이상 콜센터 직원들의 동선을 따라 불특정 다수의 접촉자가 코로나19에 무방비로 노출된 결과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까지 집계된 코로나19 확진환자 8162명 중 6593명(80.8%)이 집단발생 관련 사례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중 구로 콜센터에선 124명의 환자가 나왔다. 85명은 동일 건물의 직원이었으며, 39명은 확진자의 가족 등 접촉자였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달 21일 10층에 근무했던 교육센터 직원이 가장 유력한 첫 번째 사례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

다. 이 직원을 감염원으로 본다면 콜센터 전파가 이뤄진 건 지난달 20일 이전이다. 이달 10일 콜센터 내 확진환자가 처음 확인되기까지 19일 이상 콜센터 환자들을 통한 건물 내, 동선 내 노출이 발생한 것이다.

콜센터 확진자들의 접촉자를 중심으로 추가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크다. 이미 10층 확진자가 방문했던 부천 생명수교회에선 종교행사 등을 통해 13명의 확진자가 나왔으며,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접촉자 중에선 가족 2명과 현재 함께 근무하는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부천 교회의 경우, 교회 내 확진자를 통한 요양 시설 등 다른 시설로의 전파도 발생한 상황이다.

이미 국내에서 감염 경로가 불확실한 집단감염 사례가 다수 발생한 만큼,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환자의 감염 경로를 역추적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확인된 환자의 접촉자를 찾아 관리하는 게 현 상



애플이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국내 유일 애플스토어인 '애플 가로수길'을 27일까지 임시 폐쇄한다. 사진은 15일 '애플 가로수길' 매장을 찾은 고객들에게 휴점 안내를 하는 직원들. 연합뉴스

황에선 최선이다. 가장 효과적인 건 환자가 증상을 인지한 시점에 바로 진단검사를 받거나, 스스로 다른 사람과 접촉을 차단 하는 것이다. 고무적인 점은 이날 신규 확진환자가 지난달 21일(74명) 이후 23일 만에 100명

밑으로 떨어졌다. 이날 신규 확진환자는 전날 0시부터 76명 늘었는데 그쳤다. 지역별로는 콜센터 집단감염이 발생한 서울에서 9명(총 확진자 247명), 인천에서 2명(30명), 경기에서 11명(211명) 각각 늘었다. 대구와 경북은 각각 41명 늘어난 6031명, 4명 늘어난 1157명으로 집계됐다.

120명이 추가 완치되면서 격리 해제된 환자는 누적 834명으로 늘었다. 격리 중인 확진환자는 7253명으로 전날보다 47명 줄었다. 13일 처음으로 신규 완치자가 확진자를 역전한 뒤, 사흘째 이런 '골든 크로스'가 유지되고 있다.

권 부본부장은 "신천지(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신도와 관련된 발생이 어느 정도 다 드러났기 때문에, 남은 중요한 건 지역사회에서 조용히 진행되고 있는 전파의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라며 "현재는 오로지 코로나19의 첫 발생이라 생각하고 한 케이스, 한 케이스를 최선을 다해 추적하고, 그것을 위한 내부 조직을 유연하게 확장하고, 또 재정비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공정위 '코로나 위약금' 바로잡는다

외식·예식업체 약관 심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취소 위약금 분쟁이 속출하고 있는 외식·예식업 분야에서의 불리한 위약금 약관을 바로잡는다.

일부 업체에서 소비자에게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 약관심사과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외식업 중앙회 관계자들과 만나 취소 위약금 분쟁의 원활한 해결을 요청한 후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의 약관상 위약금 규정이 과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업계가 자율시정하지 않으면 약관법에 따라 문제의 약관들을 심사하고 수정·삭제 결정을 내리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약관심사까지 예고한 것은 돌잔치 등 연회 관련 업체 상담수가 너무 높은 수준의 위약금을 요구하고 계약금 환불 불가 규정까지 두는 등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과도한 손해배상 의무를 지워 약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실제 '1372 소비자상담센터'나 한국소

비지원에 접수된 코로나19 위약금 관련 상담 및 분쟁조정 사례를 보면 이와 같은 사례들이 많은 실정이다.

현재 연회 업계의 위약금 약관 조항은 거의 같지만 대체로 행사일까지 남은 기간과 관계없이 계약 후 7일이 지난 뒤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금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 위약금도 △행사 90일 전 해약 시 총이용금액의 10% △30일 전 해약 시 30% △15일 전 해약 시 50% △7일 전 해약 시 100%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을 환불해주고 7일 이전 해약하면 계약금만 위약금으로, 7일 이후 해약할 경우 계약금 및 총이용금액의 10%만을 위약금으로 받도록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외식업뿐 아니라 예식업의 약관 조항을 심사해 약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위반'으로 최종 판단되면 약관 조항은 무효가 되고 공정위는 수정 또는 삭제를 지시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위약금 등의 요구가 지나치다고 판단되면 소비자가 공정위에 해당 업체의 약관심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재택근무 콜센터에 인프라 구축 2000만원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직원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에 나서는 콜센터 등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최대 2000만 원이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여신금융업, 흡소핀 및 소셜커머스 등의 분야에서 직원의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계획 인원의 50% 이상)로 전환하는 사업주에 대한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구로구 콜센터 사례처럼 콜센터 직원들이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되고 있음에도 업무 특성상 재택근무가 어려운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콜센터 업무를 재택근무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VPN(가상사설망)을 구입 또는

임차해야 한다. 이에 고용부는 중소·중견기업에 속한 콜센터 사업주가 이러한 재택근무 인프라를 구축하면 구축비용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다만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구입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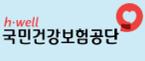
고용부는 콜센터 이외에도 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다른 업종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지원한다.

재택근무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작성해 고용보험홈페이지(www.ei.go.kr)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과(팀)에 팩스나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질병관리본부
KCDC



h-well
국민건강보험공단



해외감염병
NOW
1339
방역관리본부 콜센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기억해야 할 국민수칙

필수 위생수칙 4가지



**비누로 30초 이상
꼼꼼하게 손씻기**



**기침할 땐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리기**



**기침 등 호흡기 증상 시
마스크 착용하기**



**의료기관(선별진료소) 방문 시
해외여행력 알리기**

최근 14일 이내 중국 및 유행국가 방문한 경우



가급적 외부활동 자제



손씻기, 기침예절 준수



**발열, 호흡기 증상 시 선별진료소* 방문 또는
관할보건소, 1339, 지역번호+120 상담**

* 선별진료소 안내: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확인,
관할보건소 또는 1339, 지역번호+120 문의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정보는 [코로나19 공식페이지 ncov.mohw.go.kr](http://ncov.mohw.go.kr) 에서 확인하세요!

발행일: 2020. 2. 12

“개혁 완수” vs “정권 견제”... 與野 모두 ‘심판론’

총선 D-30 관전포인트 ‘심판론·잠룡승부·비례정당’

민주·통합당 서로 “꿈수다” 비판한 비례당, 표가 얼마나 몰릴지 관심 ‘잠룡’ 이낙연-황교안 종로 빅매치... 김부겸·오세훈 대권 발판 노려

30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와 새 선거제도 등으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흐름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각각 내세우는 ‘정권심판론’과 ‘야당 심판론’, 새 선거제도 도입에 따른 ‘비례정당’ 등이 승부를 가를 주요 지점으로 꼽힌다. 차기 대권을 보고 있는 잠룡들의 승부도 빼놓을 수 없는 관심사다.

이번 총선에서 여야가 내세우는 선거 프레임은 모두 ‘심판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유권자들에게 ‘야당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이 국회 보이콧과 장외 투쟁으로 사사건건 국정의 발목을 잡는 통에 개혁 동력이 떨어졌으며, 남은 개혁 과제를 완수하려면 통합당을 심판하고 민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다.

통합당은 ‘문제인 정권 심판론’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있다. 집권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조국 사태’와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에 이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까지 정권의 위선과 무능함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커졌다는 게 통합당의 판단이다. 통합당은 총선에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할 수 있다는 구호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한 비례대표 선거가 처음 실시되는 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둘러싼 여야의 경쟁도 치열하다. 전략적 대응은 미래통합당이 빨랐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들었다. 미래통합당은 지역구에서만, 미래한국당은 비례대표만 공천하는 방식이다. 새 선거제도의 도입 정신을 훼손한다는 비판 속에도 파급 효과는 명확했다. 현재의 정당지지를 적용하면 30석 가까운 의석을 차지할 수 있다는 예상까지 나왔다.

민주당도 뒤늦게 소수정당과 연대하는 비례대표 연합정당 참여 구상을 본격화했다. 이대로 손을 놓고 있으면 보수 진영에 과반을 내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다. 다만 연합정당에 반대하고 있는 정의당 등 소수정당의 참여를 끌어낼 수 있을지가 변수

다. 비례정당에 ‘꿈수’ 비판이 거센 상황에서 거대 양당이 대리전 성격으로 내세운 비례정당으로 얼마나 표가 몰릴지, 투표용지에 기호가 어떻게 배치될지에 따라 다양한 시나리오와 유불리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여야 ‘대권 잠룡’의 정치적 운명도 이번 총선을 통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최대 관심 지역은 이낙연 민주당 선대위원장과 황교안 통합당 대표가 맞붙는 ‘정치 1번지’ 종로 선거구다. 전·현 정부 국무총리 출신의 대결이기도 한 이번 승부는 전체 선거 분위기는 물론 차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어느 쪽이든 이기는 쪽은 대권에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는 반면, 지는 후보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돼 차기 대권 물망에서도 배제될 전망이다.

역시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김부겸 민주당 의원, 유승민 통합당 의원, 오세훈 전 서울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의 운명도 이번 선거에서 큰 변곡점을 맞는다. 김부겸 의원은 통합당의 텃밭인 대구 지역구 수성에 성공하면 확장성을 지닌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협지’ 서울 광진구에 나선 오세훈 전 서울시장,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대표도 각각 지역구 대결과 정당투표에서 어떤 성과를 얻느냐가 향후 행로를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충현 기자 lamuziq@

4·15 총선 주요 격전지

○ 더불어민주당 ○ 미래통합당 ○ 정의당 ○ 민생당

이낙연 상임선거대책위원장	황교안 대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박정하 전 청와대 대변인
서울 종로	서울 광진구	공주·부여·청양	정진석 의원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	정우택 의원
서울 동작구	나경원 전 원내대표	청주흥덕	정우택 의원
이수진 전 판사	김용태 의원	도종환 의원	정우택 의원
서울 구로구	김용태 의원	부산진강	서병수 전 부산시장
윤건영 전 국정기획실장	김용태 의원	김영춘 의원	서병수 전 부산시장
안양동안울	추혜선 원내수석부대표	전주병	정동영 의원
이재정 대변인	심재철 원내대표	김성주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동영 의원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30일 앞둔 15일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전주시 전북도선관위 앞에서 시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기 위해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뉴스시

선거 앞두고 ‘재난기본소득’ 불씨 활활

정부·靑 신중론에도... 여당서 ‘현금성 지원’ 요구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일부 지자체장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난기본소득’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재난기본소득이 본격적으로 거론되기 시작한 것은 민간 정책연구기관의 제안이 나온 지난달 말부터다. 6일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8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잇달아 ‘1인당 100만 원’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제안하면서 논의에 불이 붙었다. 9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상품권 60만 원씩 상품권을 주는 내용을 포함한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이후 국회에서도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대구·경북 지역에 1인당 100만 원을 지급하자”고 주장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대구·경북(TK) 지역의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의견을 냈다.

정부는 일단 재난기본소득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

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정당국 입장에서 재난기본소득 제도 도입에 굉장히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문제가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 또한 현 단계에서 재난기본소득을 추진할 계획이 없다는 입장을 공식 브리핑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누차 언급했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 쉽사리 불씨가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11조7000억 원 규모의 정부추경안이 코로나19 대응에 충분치 않다는 공감대가 크다. 이에 2차 추경과 재난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대규모 증액이 논의되고 있는 가운데, 추경의 증액 규모가 충분치 않으면 국회에서 곧바로 ‘2차 추경’ 논의에도 불이 붙을 가능성이 크다. 재난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서도 당내 일부 의원들이 도입에 찬성하는 토론회를 여는 등 균형을 지피고 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소비·수출·투자 ‘트리플 부진’... 기댔 곳은 재정뿐

자영업 매출 급감, 폐업 속출
지난달 日평균 수출액 11.7%↓
관광객 45%↓... ‘추경 증액’ 탄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경제 활력이 사라졌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경북과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한 수도권·충청권에선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급감했고, 경기 의존도가 높은 산업들은 폐업 등 구조조정 위기에 직면했다. 글로벌 팬데믹(pandemic·대유행)에 따른 수출액 감소와 추가적인 생산·투자 감소도 우려된다.

1월 20일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사태가 2개월 가까이 이어지면서 전반적인 경기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바닥을 기고 있다. 대구 중구에선 47개 업종의 매출이 코로나19 확산 전보다 30% 이상 감소했다.

대구·경북연구원(임규채·최재원 박사)이 비씨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대구·경북연구원 CEO 브리핑

제601호)를 보면, 코로나19 사태 전후로 대구 중구와 동구는 매출액이 각각 31.2%, 24.1% 줄었다.

수도권과 충청권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시민들이 외부활동을 자제하면서 주요 변화기에는 발길이 끊겼다. 상당수 점포는 ‘코로나19가 안정될 때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문구를 써 붙인 채 가게 문을 걸어 잠갔다. 임대료 부담에 영세 자영업자들의 폐업도 속출하고 있다.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96.9포인트(P)로 전월보다 7.3P 하락했으며, 소상공인이 체감한 경제 전반의 경기실사지수는 41.5P, 매출실적은 40.0P로 각각 25.8P, 25.9P 급락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소비에 국한되지 않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코로나19의 국제적 확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규엽 무역통상실 무역투자정책팀장 외)’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정도에 따라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0.51~1.02% 감소할 전망이다.

무역에서 상품은 중간재와 자본재를 중

심으로 수출 급감이 우려된다. 2월에도 일평균 수출액은 11.7% 줄었다. 수출 감소는 국내 제조업의 생산 감소, 나아가 설비 투자 위축으로 이어진다. 2월 항공편을 이용한 한국 방문객은 전년 동기보다 45.1% 급감했다. 방문객 감소는 관광업과 숙박·음식점업, 도·소매업, 운송업 등에 추가적인 타격을 준다.

기댔 곳이라곤 재정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미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11조7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상태다. 앞서 시행된 예비비 지출(1조 원), 세제지원(1조7000억 원)을 포함하면 코로나19 대응예산은 총 15조8000억 원에 이른다. 국회에선 여권을 중심으로 추경 증액이 논의되고 있다.

상태연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19 확산을 통제하면서 피해를 본 지역과 산업이 버틸 수 있도록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해 주는 것”이라며 “사태가 진정된 뒤엔 재정·통화를 활용한 추가적인 경기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지난해 韓美 교역액 ‘1352억 달러’ 역대 최대

발효 8년 된 한미 FTA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8년 차인 지난해 양국 간 교역이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출 부진 속 대미(對美) 수출은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또 FTA 발효 후 미국의 우리나라 투자액 역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한·미 FTA 발효 8년 차 교역 동향*을 통해 지난해 대미 상품 교역액이 1352억 달러로 발효 첫해인 2012년 1018억 달러보다 1.3배 늘었다고 밝혔다. 대미 교역액은 2015년(-1.6%)과 2016년(-3.6%)을 제외하면 1.0~11.6%의 상승세를 보였고, 2017년(8.8%)을 뺀 나머지 해는 전체 교역액 증감률을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는 한국의 전체 교역액이 8.3% 줄었지만 대미 교역액은 오히려 2.7% 증가했다. 수출 역시 전체 수출액은 10.4% 감소했지만, 대미 수출액은 733억 달러로 전년보다 0.9% 늘었다.

FTA 비(非)혜택 품목의 수출(-5.2%)은 전년보다 감소한 반면 혜택 품목의 수출은 6.3% 증가했다.

지난해 대미 수입은 6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5.1% 증가했다. 또 미국의 대한국 투자는 신고 기준 68억40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6.4% 증가해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FTA 발효 후 8년간(2012~2019년 누적) 미국으로부터 투자 유치액은 375억9000만 달러이다. 이는 발효 전(2004~2011년 누적 185억9000만 달러)보다 2.0배 확대된 수치이다. 세종=노승길 기자 noga813@



함께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위기를 극복하며 성장해 온 대한민국
그 놀라운 힘은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도
함께하는 의료진, 공무원,
국민들이 있기에 이겨낼 수 있습니다

더 나은 미래와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농협도 함께하겠습니다



백약이 무효인데... 파월 '코로나 카드' 또?



(미국 연준 의장)

美 연준, 18일 FOMC서 '제로금리 회귀·양적완화' 가능성 '극약처방'에도 패닉상태... '밀빠진 독에 물 붓기' 회의적 시각
美 2분기 연속 역성장 전망... 경기악화때 쓸 카드 없어질수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18일(현지시간) 나올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성명에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투자자들은 연방준비제도(Fed, 연준)가 추가 금리 인하 등 증시 안정책들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변동성이 큰 한 주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준은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1.00%포인트 하락시켜 거의 제로(0)로 낮출 것으로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연준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1%포인트 대폭 인하할 것으로 예측했다. 미국 증시가 약세장에 진입한 만큼 제로금리 정책의 부활이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또 연준은 충분한 유동성 및 대출을 보증하거나 금융 위기 시 도입한 양적 완화 재개를 통해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맞먹는 이런 조치들이 투자자들을 안심시키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문제는 팬데믹 공포가 워낙 강해 그 어떤 극약 처방도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3일 연준이 0.25%포인트 금리 인하 관행을 깨고, 0.5%포인트라는 대폭의 금리 인하를 단행했지만, 오히려 시장은 '연준이 이처럼 파격적 대응에 나설 정도로 코로나19의 경제적 충격이 크다'는 뜻으로 해석해 극도의 불안 심리를 노출했다.

이뿐 아니라 연준은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담당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을 통해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릭 프리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런 조언들이 모두 소 귀에 경 읽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도 연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며 공격을 퍼부었다. 심지어 "나에게는 (연준 의장을) 해임할 권한이 있다"며 강도 높게 압박했다.

이는 그동안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홀로 선방하던 미국 경제도 코로나19의 충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JP모건체이스는 12일 보고서에서 코로나19 여파로 1분기와 2분기 미국 경제성장률이 각각 -2%와 -3% 역성장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렇게 되면 사상 최악의 증시 호황이 막을 내린 데 이어 11년에 걸친 미국 경제 사상 가장 긴 확장 국면도 끝이 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시장에 대한 유동성 공급을 강화했다. 하지만 시장은 이런 부양 조치보다는 시시각각 일어나는 코로나19 관련 뉴스에 반응하는 패닉 상태를 보였다.

12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는 10% 폭락해 1987년 '블랙 먼데이' 이후 최악의 하루를 보였고, 그다음 날에는 다시 9.3% 폭등한 게 그 방증이다.

이런 상태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 봐야 밀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회의적인 시

각이 지배적이다. 에드워드존슨의 넬라리 처드슨 투자전략가는 "연준이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시장은 부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해서 적극 행동에 나섰다가는 짧은 기간에 귀중한 정책 수단을 희생시킬 수 있다는 딜레마에 직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나중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경기 악화로 실업률이 확대하거나 디플레이션이 시작됐을 때 정작 쓸 수 있는 카드가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다.

WHO "이제 유럽이 팬데믹 진원지"

'국가비상사태' 선포 잇따라
이탈리아 확진 2만명 돌파
스페인엔 6일 만에 10배 ↑

중국에 이어 유럽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가 되고 있다.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1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 본부에서 가진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제 유럽이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의 진원이 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현재 123개국에 걸쳐 13만 2000명이 넘어선 상황에서 이탈리아, 스페인, 독일, 프랑스 등 유럽에서의 가파른 확진자 증가세를 의식한 발언이다.

거브러여수스 사무총장은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었을 때보다 더 많은 확진 사례가 매일 보고되고 있다"면서 "사망자가 전 세계적으로 5000명을 넘어선 것은 비참한 고비"라고 우려했다. 또 "현재로서는 특효약도 없다"고 절망감을 나타냈다.

실제로 유럽은 출구가 없어 보일 정도로 상황이 심각하다. 이탈리아 확진자는 2만 명을 넘어섰다. 이탈리아 보건당국은 14일 오후 6시 기준, 전국 누적 확진자가 2만 1157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전날 대비 3497명 증가로 이탈리아에서 하루 신규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망자는 1441명으로 175명 증가했다. 이탈리아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유럽에서 이탈리아 다음으로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한 스페인도 비상이다. 14일 스페인 보건부에 따르면 스페인 전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753명으로 하루 전보다 1500명 이상 늘었다. 8일 589명에 불과하던 확진자가 여섯 만에 10배로 늘었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누적 사망자는 136명이다.

이에 스페인은 15일날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동 제한 조치에 나섰다. 산체스 총리는 긴급 내각 회의를 진행한 뒤 대국민 연설을 통해 15일부터 국가비상사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스페인 전역



"나, 음성입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 수행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인사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와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언론이 난리를 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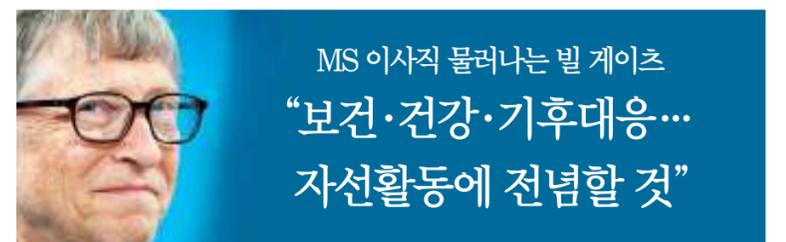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코로나19 테스트포스 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브리핑실을 나가고 있다. 이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최근 브라질 대통령 수행원 등 트럼프 대통령과 접촉한 인사들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트럼프 대통령의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와 검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결과가 나오기 몇 시간 전 "언론이 난리를 쳐서 검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워싱턴D.C./AP연합뉴스

에서 모든 국민은 약 2주간 생필품·약품 구매, 출퇴근 목적을 제외하고는 자택에 머물러야 한다. 스페인 정부는 박물관, 스포츠 센터 등을 폐쇄하고 감염 위험이 높은 장소에서의 행사 개최도 제한했다.

프랑스는 슈퍼마켓, 약국, 은행을 제외한 전국 상점 및 음식점의 영업을 금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14일 저녁 8시 기준 프

랑스의 확진자는 4469명, 사망자는 91명으로 집계됐다.

에두아르 필리프 프랑스 총리는 기자회견을 열어 "15일 자정부터 국가 운용에 필수적이지 않은 다중시설을 폐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프랑스 정부는 15일로 예정된 지방선거 1차 투표는 진행하기로 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MS 이사직 물러나는 빌 게이츠
"보건·건강·기후대응...
자선활동에 전념할 것"

팬데믹 선언 후 '아름다운 퇴장'
"코로나19, 우려하던 일 현실로"

빌 게이츠(사진)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가 MS와 버크셔해사웨이 이사직을 내려놓고 자선 활동에 전념한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게이츠는 전날 "버크셔와 MS 리더십이 지금보다 강했던 적이 없었기에 지금이 자리에서 물러날 적기"라면서 "국제 보건과 개발,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자선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다"고 밝혔다. 2000년 MS 최고경영자(CEO)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2014년 회장직을 내려놓은 데 이어 이번에 이사회까지 떠나기로 하면서 MS와 완

전한 작별을 고한 것이다.

특히 그의 사임 소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선언이 이뤄진 지 며칠 만에 나왔다. 그는 2월 말 의학저널 'NEJM'에 기고한 글에서 "코로나19로 인해 그간 우려해온 일이 현실화했다"면서 "저소득 및 중간소득 국가의 의료시스템 강화를 돕는 것이 중요하다"고 자선활동 계획을 시사한 바 있다.

게이츠는 "MS 이사회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MS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 및 기술 지도부와 계속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MS는 항상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계속해서 회사가 비전을 구체화하고 야심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다. 김서영 기자 0jung2@

버크셔 연례 주총, 올해는 無주주행사로

온라인 중계... 오마하 대목 놓쳐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해사웨이가 연례 주주총회를 올해는 주주 없이 열기로 했다. 이에 매년 5월이면 수만 명의 외지인들로 북적였던 미국 중부 네브래스카주의 시골 오마하가 연중 대목인 '버크셔 주총 특수'를 누리지 못하게 됐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버핏은 13일(현지시간) 5월 2일 개최 예정인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에 주주들을 초대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주주들을 부르지 않기로 한 것이다.

버크셔 측은 "주총은 예정대로 실시되겠지만, 참석자는 버핏 회장과 찰리 멩거 부회장 등 일부 버크셔 직원으로 제한될 것"이라며 "주총은 야후의 동영상 서비스로 볼 수 있다"고 했다. 버핏 회장은 "이런 결정을 하게 돼 매우 유감"이라면서도 "오마

하를 코로나19의 핫스팟이 될 가능성에 노출시키지 않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주의 우드스탁'으로 불리는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는 매년 전 세계 주주들을 오마하 시골로 불러들였다. 2박 3일 동안 경영진과 주주들이 한데 어우러져 기업의 현재와 미래를 허물없이 논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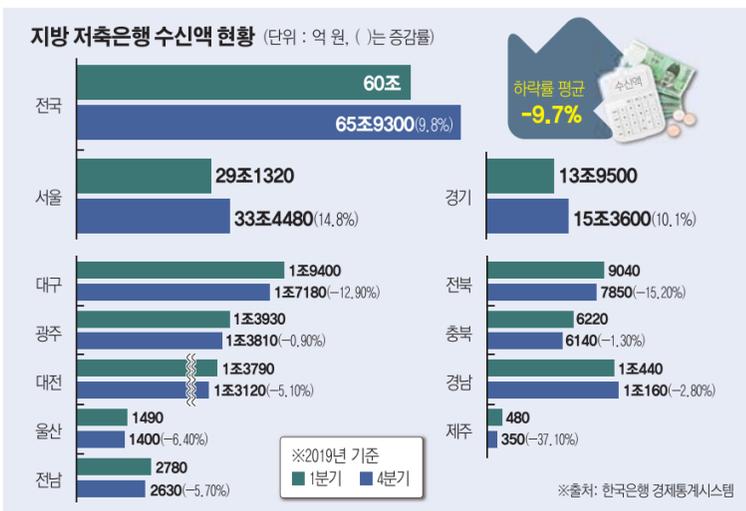
그러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는 이런 특수를 모두 놓치게 된 것이다. 앞서 진 스타트 오마하 시장은 11일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에 대해 '팬데믹(전염병의 세계적 대유행)'을 선언하자, 그 이튿날 기자회견을 갖고 "버크셔의 연례 주주총회 일정 변경 여부를 놓고 버핏과 논의했다"며 "그는 매우 책임 있는 사람이고, 공공의 안전은 그에게 최우선 순위"라고 말했다. 버크셔의 '주주 없는 주총' 결정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미국 내 코로나19 감염자는 14일 기준 3000명에 육박하며, 사망자는 60명에 이르렀다. 배수경 기자 sue6870@

지방 저축銀, 경쟁력 저하·경기 침체 '이중고'

신한銀 고객센터 업계 첫 재택근무

작년 전국 수신액 10% 늘었지만 지방 소재 16곳 중 9곳은 줄어 "수도권 은행과 금리경쟁 역부족 침체 장기화 땀 부실사태 우려"



지방 저축은행이 지역 경기 침체로 위상이다. 일부 지방 저축은행은 지난해 수신액이 대폭 줄었다. 지방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대출액과 가계대출액도 감소했다. 장기간에 걸친 지역 경기 침체에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과 금리 경쟁에서 밀려 양적·질적 양극화를 겪고 있다는 해석이다.

1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수신액이 줄어든 지방 저축은행 소재지는 전국 16개 지역 가운데 9곳에 달했다.

주요 지역별로는, 대구는 지난해 4분기 수신액이 1조7180억 원으로 1분기 수신액 1조9400억 원보다 12.9% 감소했다. 같은 기간 대전은 1조3790억 원에서 1조3120억 원으로 5.1% 줄었으며 광주는 1조3930억 원에서 1조3810억 원으로 0.9% 감소했다. 경남 역시 수신액이 1조440억 원에서 1조160억 원으로 2.8% 줄었다. 감소폭만 놓고 보면 제주는 1분기 수신액 483억 원에서 4분기 352억 원으로 37% 이상 규모가 줄어든 모습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저축은행 수신액은 65조9300억 원으로 1분기 60조 원보다 약

10%가량 증가했다. 특히, 서울 지역 저축은행은 1분기 29조1320억 원에서 33조4480억 원으로 약 15% 수신액이 증가했다. 경기 지역 저축은행 역시 1분기 13조9500억 원에서 4분기 15조3600억 원으로 약 10% 증가했다.

이는 지방 저축은행과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 간 금리 경쟁력 차이와 지역경기 침체 여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대형 저축은행은 자금력을 바탕으로 지속해서 성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 저축은행은 자산 감소에 경기 침체가 더해져 마땅한 돌파구가 없다. 여기에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전 산업영역이 타격을 입을 것을 고려하면 지방 저축은행의 '이중고'는 계속될 전망이다.

대구 지역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수신액 감소와 관련해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면서도 "직접적인 요인은 수도권 저축은행과 금리경쟁에서 밀려 수신액이 감소한 것과 장기간에 걸친 지역 경기 침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여파와 전망에 대해서는 "지역 경기 나쁜 게 어제오늘 일도 아닌데

말해서 뭐 하느냐"고 했다.

대구 내 다른 저축은행은 관련 질문에 답변 자체를 거절하는 등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지난해 통계상으로 상황이 나은 다른 지역 저축은행 역시 경기 전망을 묻자 부정적인 답변만 돌아왔다.

실제로 지난해 3분기 말까지 대구 지역 저축은행 '고정이하여신비율(NPL)'은 모두 10% 이상이였으며 20%에 근접한 곳도 있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저축은행의 NPL 비율은 6~7%대 수준이었다. 반면, 서울 23개사는 4.9%, 경기-인천 19개사는 4.7%로 다른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현재까지 지방 경기 반등의 전환점이 없었던 것을 고려할 때 지방 저축은행 하락세가 계속될 것이라 관측이 우세하다.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지방 경기 회복세가 없다면 일부 지방 저축은행 부실사태도 우려된다"며 "성장이 문제가 아니라 생존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신한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은행권 최초로 고객센터 직원의 재택 근무를 시행한다.

신한은행은 16일부터 고객상담센터 직원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는 직원 448명 중 150명이 순차적으로 재택 근무를 하게 했다. 상황이 더 악화하면 재택 근무 인원을 250명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정부의 '감염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밀집 사업장을 대상으로 재택 근무 등을 권고했다.

신한은행은 재택 근무 직원 주거지에 업무용 노트북 상담 시스템과 인터넷 전화를 설치해 사무실과 동일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상품 안내, 비대면 채널 이용 방법 안내, 서류 및 자격조건 안내 등 개인정보 조치가 불필요한 업무만 재택 근무 직원에게 배정하고, 개인정보 조치가 필요할 경우 사무실 근무 직원이 상담 업무를 이어가게 했다.

박은평 기자 pepe@

M&A 힘 실리는 '흥아해운' 채권단, 경영 정상화 가속도

뱅크선 사업 경쟁력 호평 "기업 1곳 인수 의향 밝혀" 중견 선사 통폐합 '초읽기'

국내 5위 해운선사 흥아해운이 워크아웃(기업개선택업)을 신청한 가운데 채권단은 인수합병(M&A)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상화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흥아해운을 인수한다는 의사를 밝힌 기업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 해운사들의 통폐합 작업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흥아해운 주채권단인 산업은행은 워크아웃 신청서를 받은 후부터 관련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부산은행과 수출입은행, 신한은행 등 채권단협의회도 주채권단 주도 아래 구조조정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흥아해운의 금융부채는 총 2493억 원 규모다. 산은과 수출입은행 등에 묶여 있는 채권액만 약 1000억 원 규모다.

앞서 흥아해운은 10일 워크아웃 신청을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흥아해운의 워크아웃 신청이 '갑작스럽다'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사실상 예고된 결정이라는 평가가 짙다. 채권단 측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경영상 어려움을 겪었고, 현실점에서 흥아해운에 대한 M&A 여건이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영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흥아해운은 지난해 말 해양수산부

와 해양진흥공사의 주도 아래 주력인 컨테이너선 사업을 장금상선에 매각하고 자체 재무구조 개선 노력을 했지만, 성과를 보지 못했다. 이번 워크아웃은 사실상 M&A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전에 몸집을 줄이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흥아해운 인수 의향을 밝힌 기업이 1곳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흥아해운의 남은 주력 사업인 뱅크선 부문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이제 막 워크아웃의 시작 단계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인수 의사 기업이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 '의사' 정도만 전달했기 때문에 인수에 대한 가능성은 미지수다.

채권단은 정상화에 필요한 작업을 우선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흥아해운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금 조달도 필수적이다. 채권은행 관계자는 "M&A에 대한 가능성을 열고 정상화에 필요한 투자금 지원 등이 논의될 것"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채권단 간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흥아해운은 1961년 세워진 해운사로 현대상선, 고려해운, SM상선, 장금상선에 이은 국내 5위다. 동남아시아 항로 시장의 선복 과잉 공급으로 컨테이너선 시황이 악화되며 2016년 이후 내리막길을 걸었다. 흥아해운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 2018년 376억 원의 영업 손실을 낸 데 이어 작년에는 469억 원으로 적자폭이 늘었다.

곽진산 기자 jinsan@

인공지능 ERP

업무를 스스로 처리하다!

더존 iCUBE가 더욱 스마트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와 빅데이터 처리기술, 기계학습 방법론 및 딥러닝 응용 알고리즘을 구현한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 기업의 업무는 이제 국내 유일 인공지능 ERP, 더존 iCUBE에 맡기십시오.

회계처리 쉬운 방법 없을까?
기회·비용 자동추진, 자동반계, 자동입매하고 회계 및 데이터 오류까지 자동 검증

우리 회사 경영 상황을 분석할 수 있을까?
ERP에 축적된 데이터를 기업에서 필요한 형태로 수정할 수 있는 분석을 제공

회사 밖에서 급한 업무가 생기면 어떡하지?
언제 어디서나 어떤 기기로도 실시간 업무 진행이 가능한 스마트 워크

믿을 만한 거래처인가?
거래처 신용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

기업용 ERP

더존 iCUBE IFC **실시간** | 더존 iCUBE Cloud **클라우드 서비스**

- 회계관리
- 인사관리
- 영업관리
- 무역관리
- 구매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 서비스관리
- 경영정보관리
- 공시행정관리

비영리법인 및 공공기관용 ERP

더존 iCUBE G20 **공공기관** | 더존 iCUBE G20 **클라우드 서비스**

- 예산관리
- 자산관리
- 후원자관리
- 회계관리
- 인사관리
- 경영정보관리
- 영입관리
- 구매재관리
- 생산관리
- 외주관리

더존 ERP

기업의 모든 IT 고민, 더존 IT코디네이터와 상담하세요 | 문의 1688-5000

SK, 기업가치 극대화 승부수 던졌다

SK그룹이 기업가치 극대화에 승부수를 던졌다.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스톡 옵션)을 부여해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리더십을 요구하는 한편, 기업가치 제고의 기본 조건인 '구성원의 행복'을 경영 지향점으로 바꾸는 작업에 돌입했다.

15일 SK머티리얼즈에 따르면 이용욱 SK머티리얼즈 대표이사는 보통주 3만 7171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이달 31일 받을 예정이다.

SK머티리얼즈는 "경영진과 주주의 이해 일치를 통한 기업가치 극대화를 위해 경영진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해 회사의 장기적·궁극적 기업가치 제고를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스톡옵션제는 기업이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향후 기업 주가 상승 시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액면가 또는 시세보

계열사 CEO 스톡옵션 부여
SK이노·SK하이닉스 이어
SK머티리얼즈·SK(주) 시행
경영진·주주 '이해' 일치 목적

정관에 '구성원의 행복' 추가
행복경영, 그룹 지향점 삼아
경영관리체계 'SKMS' 개정



최태원 SK 회장

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입할 수 있어 차익을 거둘 수 있다.

SK그룹 역시 경영진 개인의 이해와 주주의 이해를 일치시키기 위해 주요 그룹사 경영진에 스톡옵션을 주는 방안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SK(주)는 조대식 SK수펙스추진협의회 의장과 장동현 사장에게 올해 각각 11만 7376주, 9만6662주 규모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SK텔레콤 역시 정기주총에서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에게 취임 직후인 2017년 이후 3년 만에 11만1106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안건을 상정했다. 김준 SK이노베이션 총괄사장은 2018년 7만 551주를, 이석희 SK하이닉스 사장은 지난해 17만9763주의 스톡옵션 행사 권리를 받았다.

이에 주요 계열사 CEO들은 올해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화두를 앞다퉈 던지고

있다.

장동현 사장은 9일 SK(주) 주주들에게 서한을 발송하고 "최적의 포트폴리오 구조를 구축하는 것이야말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는 지주회사로서의 가장 중요한 의무이고, 그것이 곧 기업가치의 극대화를 이루는 방안"이라며 "기존 사업 비즈니스 모델의 변화와 급변하는 환경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적절한 구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정호 사장은 "올해 주식을 사도 된다"며 SK텔레콤의 기업가치 제고에 자신감을 내비쳤다.

SK그룹은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진의 의지를 북돋우는 동시에 기업가치의 기반을 이루는 구성원의 행복을 극대화하는 데도 중점을 두고 있다.

SK그룹은 지난달 기업문화의 토대가 되는 'SKMS(SK경영관리체계)'를 개정했다. 14차 개정안에는 행복경영 주체로

서 구성원 역할과 실천을 강조하고, 이해관계자 범위를 고객, 주주, 사회, 사업 파트너로 확장하며, 함께 추구할 이해관계자 행복을 '사회적 가치'로 정의하는 내용을 반영했다.

최태원 SK 회장은 개정 당시 "SKMS는 함께 실천하기로 약속한 우리의 믿음과 일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SKMS를 나침반 삼아 행복경영 실행력을 높여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SK그룹사들은 올 주총에서 정관 전문에 '구성원의 지속적 행복'을 경영 지향점으로 명시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 각 그룹사의 정관 전문에는 "경영활동의 궁극적 목적은 구성원 행복이다. 경영활동의 주체인 구성원은 '구성원 행복'과 함께 '이해관계자 행복'을 키워 나감으로써 지속적 행복을 추구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반영된다. 김유진 기자 eugene@

노는 여객기를 화물기로... 대한항공의 역발상

조원태, 화물칸 활용 아이디어
베트남 호찌민 기업물품 운송
공항주기로 감면 등 비용 절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항공업계가 피해를 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이 운항 중단한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하기로 했다. 수출입 기업의 원활한 경제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여객기를 활용해 공항 주기로 감면 등 비용 절감을 꾀하자는 취지다.

대한항공은 13일부터 베트남 호찌민 노선에 20여 톤의 화물을 실을 수 있는 A330-300 여객기를 투입해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의 긴급 물량과 한국발 농산물 등의 화물을 수송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호찌민 노선은 베트남 정부의 입국 제한 조치로 이달 3일부터 운항을 중단한 상태다.

여객기를 화물기로 활용하는 조치는 조원태 대한항공 회장의 아이디어인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발 승객의 입국을 제한하는 국가가 늘어나면서, 대한항



대한항공이 코로나19로 유휴 중인 노선을 대상으로 여객기에 화물만 실어 운항한다. 사진은 여객기 화물칸에 화물을 싣는 모습. 사진제공 대한항공

공은 13일 기준 총 124개 노선 중 89개의 운항을 중단했다. 수요 감소로 인한 잇따른 감편으로 국제선 여객 운항 횟수는 평소 대비 86% 줄어들었다. 여객기가 발이 묶임에 따라 여객기를 통한 화물 수송도 크게 감소한 상태.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조 회장은 최근 임원 회의에서 "코로나19로 어려

움이 가중되고 있는 만큼 새로운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휴 여객기의 화물칸을 이용해 화물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면, 공급선을 다양화하는 한편 주기로 등 비용까지 줄이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항공은 지난달 25일부터 여객기

가 운항하지 못하고 있는 중국 칭다오에도 이달 21일부터 여객기를 투입해 화물을 수송하는 등 대상 지역과 품목을 늘려갈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미국의 유럽 발 항공편 입항 금지 조치 등 코로나19로 인해 급변하고 있는 항공시장에 맞는 새로운 수요를 적극적으로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폴더블폰용 올레드 연평균 2배씩 성장"

시장조사업체 옴디아 전망
"삼성디스플레이 패널 주도"

폴더블폰용 올레드(OLED·유기발광 다이오드) 패널 시장이 연평균 2배씩 고속 성장할 것이라 전망이 나왔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옴디아(OMDIA·옛 IHS마켓)는 폴더블폰용 올레드 패널 출하량이 2026년까지 연평균 93.9% 성장한다고 전망했다.

시장 규모가 올해 390만 대에서 매년 성장해 2026년에는 7310만 대에 이를 것이라 관측이다. 플렉시블 올레드 시장에서 폴더블 올레드가 차지하는 비율도 올해 1.3%에서 2026년엔 11.3%로 확대될 것으로 예측됐다.

성장하고 있는 폴더블 올레드 패널 시장에서는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옴디아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삼성디스플레이는 삼성전자의 9월 갤럭시 폴드 출시로 폴더블 올레드 시장에서 89.6%라는 압도적 점유율을 기록했다.

특히 삼성디스플레이는 폴더블 올레드 핵심 기술인 초박막 강화유리(UTG)를 상용화했고, 터치 내장형 패널(Y-OCTA) 분야에서도 중국 업체 대비 앞선 기술력을 갖췄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제주항공·이스타항공 공정위 결합심사 신청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한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제주항공은 13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이스타항공과의 기업결합심사 신청서를 접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경쟁제한성 평가를 위한 시장의 확정 및 제한성 평가 등을 판단하게 된다.

제주항공은 2일 이스타홀딩스와 이스타항공 주식 497만1000주(51.17%)에 대한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가액은 695억 원보다 150억 원 낮은 545억 원이다.

제주항공은 공정위 기업결합심사가 마무리되면 잔금 납부 후 이스타항공 주식 취득을 통해 경영권을 인수하게 되고 이스타항공 정상화에 직접 나설 계획이다. 제주항공은 해외 시장 경쟁제한성 평가가 필요한 태국과 베트남에도 기업결합심사를 이르면 시일 내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LG 시그니처 냉장고' 日서 최고 제품상

LG전자는 10일 LG 시그니처 냉장고(사진)가 일본 '가전대상 2019'에서 최고 제품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가전대상은 2015년부터 매년 일본의 가전전문지 '켓네비'와 가전 전문 온라인 뉴스 사이트 '가전위치'가 공동으로 수여하고 있다. LG 시그니처 냉장고(모델명 GR-Q23FGNGL)는 가전대상 2019 냉장고 부문 1위(금상)와 함께 일본을 대표하는 103개 제품 가운데 2019년 최고의 제품인

대상에 선정됐다.

LG전자 관계자는 "LG 시그니처 냉장고의 세련된 디자인과 차별화된 기능들이 일본 소비자들에게 호평받았다"고 설명했다. LG 시그니처 냉장고는 오토 오픈 도어(Auto Open Door) 기능을 적용해 고객이 손을 사용하지 않아도 냉장고 문을 열 수 있다. 노크온 기능도 도입돼 문을 열지 않고도 냉장고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삼성전자, 주총 전자투표 당부

삼성전자는 15일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18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 51기 정기 주주총회에 주주들의 건강·안전을 위해 가능하면 전자투표로 참여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특히 질병관리본부가 권고한 수칙상 고

위험군(임신부, 65세 이상, 만성질환자)과 발열·호흡기 증상자, 국내외 코로나19 위험지역 방문자 등은 전자투표를 이용해 달라고 권고했다.

전자투표는 8일부터 인터넷과 모바일로 진행되고 있으며, 17일까지 참여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다. 마지막 날인 17일만 오후 5시까지다.

삼성전자는 올해 사상 처음으로 외부 장소에서 주총을 개최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는 주총 당일 현장에 열화상 카메라와 비접촉 체온계를 비치해 참석자들의 체온을 확인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열이 있는 주주는 주주총회장 옆에 마련된 별도의 장소에서 회의를 지켜보아 한다.

송영록 기자 syr@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 현대차 버스 400대 계약

현대자동차는 현대중합상사와 함께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27인승 대형 버스 '뉴 슈퍼 에어로시티' 400대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공급 계약은 약 6000만 달러(약 733억 원) 규모로, 단일 버스 계약으로는 2016년 500대 공급 건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현대차는 2008년 500대를 시작으로 4년마다 투르크메니스탄 교통청에 버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2012년 200대, 2016년 500대 등 현재까지 총 1200대를 공급한 바 있다.

이번에 공급되는 뉴 슈퍼 에어로시티는 기존 차량 대비 후방 카메라, 후방 경보 장치 등 안전·편의 사양을 대폭 확대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유창욱 기자 woogi@

모두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하나금융그룹

“ 요즘 해외주식 지류가 인기라는데, 해외주식 투자는 어디서 해야 하나? ”



글로벌 투자 · 자산관리의 名家

하나금융투자에서 시작하자!



온라인 5개국, 오프라인 23개국 * 기준일 2019.7.5
28개국 거래 가능 서비스



해외주식 전문가의
24시간 상담 서비스 02)3771-3771

※투자 전 설명 청취 ※예금자보호법 상 보호상품 아님 ※원금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환율변동에 따른 손실 가능
 ※해외주식은 현지 사정에 따라 결제일이 지연될 수 있음 ※해외주식 매매수수료는 온라인기준 미국 0.25%(최소수수료 USD 5), 중국 0.3%(최소수수료 없음), 오프라인기준 미국 0.5%(최소수수료 USD 20), 중국 0.5%(최소수수료 CNH 50), 국가별, 주문별 상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19-02690호(2019.07.05~2020.07.04) CC브랜드190705-64 m.hanaw.com | 1588-3111

하나금융투자

'10조 수주 증발' 탈원전 정책이 두산중에 결정타

두산중 경영악화 Q&A

2017년 10월 24일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발표하자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던 두산중공업의 위기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직원 중 30%가량이 회사를 떠났으며, 명예퇴직, 일부휴업 등 대대적 인력 구조 조정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그동안 두산중공업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재무 상황은 어떤지, 회생가능성은 있는지 회사 관계자와 업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궁금증을 면밀히 분석해본다.

Q. 두산중공업의 경영악화는 언제부터 감지됐나.

A.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던 자회사 두산건설이 2009년 '일산 위브더제니스' 대규모 미분양 사태 이후 하락으로 떨어지자 2010년부터 두산중공업이 지원사격에 나섰다. 두산중공업은 2010년부터 1조 원이 훨씬 넘는 자금을 두산건설에 수혈했다. 2011년 두산중공업 등 그룹 전체가 5000억 원을 지원, 2013년에는 두산중공업 단독으로

미분양 두산건설에 1조 지원

2010년대 초 차입금 2배로

매출 20% 원전 수주 백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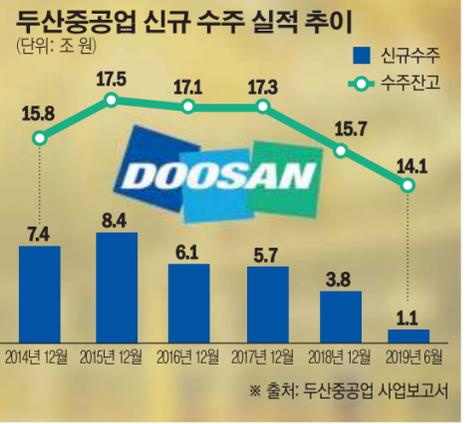
직원 10명 중 3명 회사 떠나

가스터빈 등 '걸음마' 신사업

탈원전 수익 악화 속도 못미쳐

8694억 원에 달하는 현금 및 현금 출자를 단행했다. 지원 규모는 당시 현금성 자산의 95%에 달해 상당히 부담되는 수준이었다.

이 기간(3년) 두산중공업의 차입금은 2조 원에서 4조4000억 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자구계획 이행 중인 지난해에도 두산건설의 유상증자에 3000억 원 규모로 참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은 막대한 자금을 수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수천억 원의 적자에 시달리다 결국 지난해



말 상장 24년 만에 주시장에서 퇴출되며 두산중공업의 완전 자회사로 편입됐다. 그동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Q. 탈원전 정책이 어려웠던 두산중공업의 생존에 결정타를 친 것인가.

A. 탈원전 정책은 매출의 20%에 달하는 원전사업을 해온 두산중공업의 위기에 "불씨를 지폈다"보다는 "결정타를 쳤다"고 보는 게 맞다.

전 정부에서 결정된 7차 전력수급계획에 포함된 원전, 석탄발전소 프로젝트가 현 정부의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빠지면서 10조 원 규모의 수주가 날아갔다. 당장 총 사업비 8조2600억 원에 달하던 신한울 3·4호기 원전 건설이 중단돼 연매출 6000억 원, 영업이익 900억 원 이상이 날아가게 됐다. 또 공론화 끝에 건설 재개가 결정된 신고리 5·6호기를 마지막으로 신규 수주가 백지화되면서 2016년 8조 원이 넘는 신규 수주 규모는 지난해 말 2조 원대로 쪼그라들었다. 원전 관련 매출의 수익기여도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두산중공업은 유동성 위기에 직면해 재무 건전성 악화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겪고 있다.

Q. 두산중공업 생존을 위해 어떤 노력이 이뤄지고 있나.

A. 지난해 4월 DBC(두산분당센터) 지분과 수지기술원을 계열사에 매각해 각각 467억 원과 407억 원의 유동성을 확보했다. 5월 4718억 원의 유상증자 진행, 6월 군포토지 매각계약 체결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을 지속해왔다. (주)두산이 자회사 두산메카텍 지분 100%를 두산중공업에 현금출자하는 등 그룹 차원에서의 지원도 이뤄졌다. 두산인프라코어 등 매출(연결기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자회사 실적 개선도 한몫했다.

이와 함께 일부 인력의 계열사 재배치, 관리인력 순환휴직 등 인력 감소를 통한

고정비용 절감에도 상당한 노력을 쏟았다. 급기야 지난해에는 기술직 및 사무직을 포함한 만 45세 이상 직원 2600여 명 대상으로 명예퇴직 신청을 받기로 한 데 이어 '일부 휴업'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인력 감축, 임금 축소로 인한 퇴사 등으로 두산중공업의 직원 수는 2013년 8428명 대비 지난해 3분기엔 5981명으로 30% 가까이 줄었다.

Q. 그룹 전반 위기 확산 가능성은 있나.

A. 두산중공업이 회생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음에도 이보다 더 유의미한 수준의 자구계획 또는 수익창출력 회복이 수반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두산중공업은 신성장동력을 위해 LNG발전 핵심 기자재인 가스터빈 개발, 성장여력이 기대되는 풍력발전 사업 확대, 원전 해체 시장 진출 등의 신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탈원전 사업 추락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신사업 특성상 수익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그룹의 주력 계열사이자 지원주체였던 두산중공업의 경쟁력. 수익성 악화로 끊임없이 신용도가 저하되고 있다. 이는 사업주회사인 두산의 신용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두산중공업뿐 아니라 두산건설의 잠재부실, 금융비용 부담 등으로 인해 그룹 전반의 과중한 재무 부담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이미 기자 jscs508@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혹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SK종합화학, 中 합성수지 생산법인 매각

고부가 패키징 사업 집중 전략
中 종속법인 고무 공장만 남아
佛 '아르케마' 폴리머 4월 인수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 SK종합화학이 중국 특수합성수지 생산법인을 매각했다. 차세대 성장 주력 분야로 꼽은 '고부가 패키징(포장재)' 사업에 집중하기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정리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보인다.

15일 SK종합화학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연타이에 위치한 특수합성수지인 '내열성 폴리에틸렌(PE-RT)'을 생산하는 SK 골든 타이드 플라스틱(SK Golden Tide Plastics)을 매각했다.

SK종합화학이 이번 중국 법인을 정리한 것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하고 있는 고부가 패키징 사업과 방향성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회사 관계자는 "고부가 패키징 사업과 방향이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SK종합화학은 지난해 고부가 패키징 사업 강화라는 방향성에 따라 중국 장쑤성 난퉁 루둥에 있는 스페셜티 화학 법인 'SK 화론 스페셜티 케미칼(SK

Hualun Specialty Chemical)'도 처분한 바 있다.

SK종합화학은 기존 범용 위주의 석유화학 포트폴리오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고부가 패키징을 신성장 사업으로 점찍고 고부가 화학 기업으로 변신하고 있다.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고부가 패키징 제품의 성장성이 높고 이외의 지역에서도 성장세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SK종합화학은 글로벌 화학사인 다음의 에틸렌아크릴산(EAA)·폴리염화비닐리덴(PVDC) 사업과 프랑스 폴리머 업계 1위 업체인 아르케마의 고기능성 폴리머 사업을 인수하며 패키징 사업의 역량을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아르케마의 사업 인수는 다음 달께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인수가 마무리되면 SK종합화학은 업계 최고인 다음 수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게 되는 만큼 밸류업 작업을 추진해 시너지를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법인 정리로 SK종합화학의 중국 내 종속기업은 현지 투자의 기회를 모색하기 위한 조직을 제외하고는 남보에 있는 합성고무 공장만 남게 됐다.

김유진 기자 eugene@



김달수 대표가 제주도에 위치한 창업체험공간 '첫경험충전소'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무작정 창업하지 말고 경험부터 하세요”

인터뷰 김달수 첫경험충전소 대표

창업 100분의 1 가격에 직접 카페 운영해보는 기회 제공
제주 한달살이·캐릭터 상품 판매 동시에 경험할 수 있어
지역 발전 기여 인정받아 '제주형 소셜벤처' 선정되기도

“무턱대고 창업하지 말고, 경험부터 하세요.”

전직 은행원이 제주도에 '첫경험충전소'를 열었다. '첫경험충전소'는 누구에게나 특별하고 긴장되는 창업의 순간을 선행 가득한 시작으로 바꿔줄 수 있는 경험을 전하고 싶다는 의미에서 지은 이름이다.

김달수 대표는 은행과 스타트업에서 근무하다 1년 전 제주도에 정착했다. 그런데 이웃 업소 사장들이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을 목격했다.

김 대표는 “계속 비슷한 업종의 매장을 수천만 원, 수억 원 투자해 가게를 연다. 왜 자주 시도할까 생각하다가, 경험하지 않으면 잘 모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경험할 기회를 주면 좀 더 신중하게 창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서 첫경

험충전소를 열었다”고 창업 배경을 설명했다.

아내와 세 아들을 데리고 1년 전 제주도에 정착한 김 대표가 설립한 첫경험충전소는 제주 한달살이와 카페 운영, 캐릭터 판매 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 체험 공간이다. 창업 배경은 사회적으로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무분별한 창업과 폐업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해소하려는 목적이다. 특히, 제주도는 인구당 카페 수가 압도적으로 높고, 3년 미만 폐업률은 전국 최고를 기록해 그에 따른 사회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

이에, 김 대표는 1호 프로젝트로 카페 창업에 앞서 실전 운영을 경험하도록 도와 무분별한 진출을 재고시키고, 재능 있는 창업자에게는 시행착오의 실수를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계해 운영하고 있다. 식음료 외에도 캐릭터 상품, 제주 특화 기념품 등을 통해 부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와 함께 창업 아이템을 다각도로 살필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한다.

1월에는 공공의 이익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려는 부분에 공감대를 얻어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로부터 제주형 소셜벤처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첫경험충전소는 사회문제부터 글로벌 비즈니스 가치를 발굴하는 낭그늘 프로젝트 기업으로 육성되고 있다.

김 대표는 “정부 차원에서 소상공인 지원 체계가 잘 갖춰지고 있지만,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은 아직 없다. 첫경험충전소는 세금을 쓰지 않고도, 창업을 도울 대안이 될 수 있다. 첫경험충전소를 거친 창업자들은 원하는 목표에 보다 근접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첫경험충전소의 이용료는 2주 기준, 69만 원이다. 얼핏 보서는 낮은 금액이 아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통상 카페 창업에는 최소 1억 원 이상의 초기 투자금이 발생한다. 첫경험충전소는 이 비용을 99%로 절감하는 구조다. 1억 원의 1%에

불과한 100만 원으로 먼저 카페 사장을 경험해보고, 본인과 잘 맞다면 창업에 나서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존에 하던 일에 돌아가는 것이 개인이나 사회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음료와 캐릭터 판매수익을 공유하고 카페에 필요한 물품들을 제공한다. 또한 소정의 비용을 추가하면 정원이 딸린 숙소도 이용할 수 있다. 정원에는 동백나무, 대형 울마를 포함해 아름다운 화초와 흔들 그네 등의 편의시설도 있다. 제주에서 숙소를 구하는 비용과 카페와의 동선을 생각하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이다. 예약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맞이한 고객 중에 인상 깊었던 예비 창업가는 서울에 사는 30대 여성 직장인이었다고 한다.

그는 “언제 회사를 그만둘까 고민 중이었고, 본인만의 스타일로 기획된 카페 창업을 짧고 굵게 경험해보고 싶어 하는 고객이었다. 대화를 나눠 보니 우리의 사업 철학에 부합했다. 첫경험충전소는 그녀의 성공적 창업의 시작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영희 기자 che@

SKT, 주총 첫 온라인 생중계

PC·모바일 통해 질의응답
‘전자투표’로 의결권 행사



정 사이트에서 접수 받는다. SK텔레콤은 주총 현장과 온라인에서 접수된 질의에 대한 응답 시간을 따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주가 직접 주주총회장에 가지 않고도 PC나 모바일을 통해 주총 현장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소통하는 온라인 주총 시대가 열린다.

SK텔레콤은 26일 온라인 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시간적·거리적 제약 조건으로 주총에 직접 참석이 어려운 주주들의 편의를 돕고, 주주와의 열린 소통으로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총장에 참석하지 못하는 주주들을 위해 SK텔레콤 본사 수펙스홀에서 열리는 주총 현장을 실시간 동영상 중계하고, 온라인상에서 받은 주주들의 질문에 CEO 등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주총 참여를 원하는 SK텔레콤 주주는 16일 오전 9시부터 주총 이틀 전인 24일까지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주 명부(2019년 12월 31일 기준)에서 주주 본인 확인이 완료되면 접속 코드를 부여받아 주총 당일 PC나 스마트폰 등을 통해 참여 가능하다. 특히 SK텔레콤은 16일부터 주주총회 당일인 26일까지 회사 경영에 궁금한 사항이나 의견을 온라인 신

또한 이번 주주총회에서는 박정호(사진) 사장과 MNO·미디어·보안·커머스 등 4대 사업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직접 한다. 이를 통해 SK텔레콤의 지난해 5G 및 4대 사업 성과를 설명하고, ‘조협력’을 바탕으로 한 New ICT 대표 기업으로서의 성장 전략과 사업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다.

SK텔레콤은 2018년 업계 최초로 전자투표제를 도입해 주주의 의결권 행사 편의성을 높이는 등 주주친화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전자투표 행사 기간은 16일부터 주총 전날인 25일까지로, 주주들은 별도로 마련된 전자투표 사이트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기존 관행을 깬 주총장 온라인 생중계, 경영진의 현장 프레젠테이션과 실시간 질의응답, 전자투표제 선제적 시행 등 새로운 시도는 소액 주주들의 알 권리를 제고함은 물론 국내 주총 문화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재훈 기자 yes@

교육업계 ‘신시장 개척’ 속도낸다

교육업계가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학령 인구 감소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야 하는 교육업계가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교육업체들은 이달 말 주주총회에서 사업 목적에 렌탈업, 여행업, 위치기반 서비스업 등을 추가할 예정이다. 미래를 대비해 신사업 토대를 다지는 의미에서 사업목적은 추가하는 곳도 있지만, 구체적 내용이 정해진 사업도 있어 눈길을 끈다.

비상교육은 이달 27일 주총에서 사내 이사 2명, 사외이사 1명을 재선임하는 등의 안건을 의결할 예정이다. 비상교육은 이번 주총에서 총 21개의 사업목적을 새로 추가한다. 구체적으로 △캐릭터 제작 및 판매업 △연수

운영업(위탁연수 포함) △원격평생교육사업 △캠프 관련사업 △여행 알선 및 여행사 운영 △방과후학습 관련 사업 △렌탈업 등이다.

렌탈업이 추가된 배경은 비상교육의 스마트 학습 기기를 올해부터 렌탈 서비스로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이다. 현재 비상교육의 스마트 학습 기기 ‘와이즈캠프’는 콘텐츠와 기기를 함께 구매하는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다. 기기 렌



비상교육의 스마트학습 기기 ‘와이즈캠프’.

탈 서비스를 추가하면 학부모의 비용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와이즈캠프는 이미지, 영상 등으로 데이터를 접할 수 있게 하는 학습 방식으로 주

두 회장을 신규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과 더불어 사업목적 5개를 추가한다. △학원운영업 △국내·외 여행업 △프랜차이즈업 △교육 관련 서비스업 △위각 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다. 비상교육처럼 여행업을 추가하는 배경에 대해 체험형 교육을 개발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업을 추가한 이유는 ‘휴먼 스마트학습센터’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이 센터는 초등학교 전학년·전 과목 학교 교과를 담은 전용 프로그램을 활용해 운영되는 공부방이다. 2016년 11월 론칭해 현재 전국 25개 지국이 있고, 지국 산하에 360개 스마트학습센터가 있다.

대교는 이달 20일 주총에서 ‘위치정보및 위치기반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할 계획이다. 지난해 11월 ‘에듀베이션’을 인수해 학원·강사·학부모 관리 솔루션 플랫폼 사업에 진출한 대교는 통합교육 플랫폼 사업을 계속 확장할 방침이다. 위치기반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한 배경도 토틸 서비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대교는 향후 학원 정보, 학원 관리 등 학원 관련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지민 기자 aaaa3469@

비상교육 ‘렌탈업’ 스마트 학습기기 서비스 확대
아이스크림에듀 ‘여행업’ 체험형 교육 개발 포석
대교 ‘위치기반 서비스업’ 통합 교육 플랫폼 확장

목받고 있다. 원격 평생교육과 연수운영업은 비상교육의 자회사인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의 사업을 고려해 추가됐다. 티스쿨원격교육연수원은 교원 원격 연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다만, 비상교육은 여행사 운영업과 관련 ‘향후 진행 가능한 사업 중 하나이며, 현재 진행 중인 건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아이스크림에듀는 이달 24일 주총을 연다. 주총에서는 박기석 아이스크림에

과기부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 시동

2027년까지 1700억 투입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700억 원이 투입되는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 사업이다. 혁신적 무인이동체 원천기술 확보 및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육·해·공·공통 적용 가능한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다수·이기종 간 자율협력력을 통한 통합운용

체계 구현을 중점 지원하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신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무인이동체 원천기술개발사업단’으로 선정했다. 사업단은 사업을 총괄해 과제 기획, 수행관리, 평가 등 사업 전 과정의 관리와 더불어 성과물의 기술이전, 통합기술 워크숍, 성과공유 등 산업 및 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KT “올레tv로 홈스쿨링 도와드려요”

키즈 콘텐츠 3700여 편 제공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등학교 개학이 연기되면서 KT가 올레 tv를 활용한 ‘홈스쿨링’ 지원에 나선다. KT는 이달 말까지 올레 tv ‘키즈랜드 TV 홈스쿨’ 특별관을 열어 156개 테마로 구성된 3700여 편의 콘텐츠를 제공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IPTV 키즈 서비스 중 최다 규모다. 3700여 편 중 1500여 편의 콘텐츠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핑크퐁, 노부영 등 기존에 유료로 제공하던 인기 콘텐츠 600여 편을 무료로 전환해 키즈랜드 출시 이후 가장 많은 무료 콘텐츠를 제공하게 됐다.

키즈랜드는 주 이용층인 만 3세부터 만 7세 미취학 자녀를 둔 가구를 위해 누리과 정부터 영어, 독서, 생활습관, 신체놀이, 미술놀이 등의 영역으로 나눠 홈스쿨링을 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지난 2주간 156개 테마 중 이용 증가율이 가장 높은 테마는 △1위 ‘우리집이 키즈카페’ △2위 ‘예비 초등 국어&수학 홈스쿨링’ △3위 ‘TV유치원: 미술놀이 BEST’로 나타났다.

이재훈 기자 yes@

‘집콕’ 하다 ‘확찐자’ 될라... ‘나홀로 운동족’ 늘었다

11번가 최근 한 달간 워킹머신 판매량 전년비 124%↑
이마트 1~2월 헬스기구 매출 18.6%·선식 9.3% 늘어
쿠팡·롯데마트몰 등 ‘스포츠용품 할인전’ 잇달아 기획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집콕’이 늘면서 홈트레이닝과 나홀로 운동 기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외출 자체 분위기에 피트니스센터 방문 등을 꺼리게 되면서 살이 확 찼다는 소위 ‘확찐자’들이 집에서 할 수 있는 체력 관리 및 다이어트용품에 관심이 높아진 데 따른 현상이다.

15일 11번가에 따르면 최근 한 달(2월 13일~3월 12일)간 워킹머신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124% 치솟았다. 다이어트 줄자는 110% 뛰었고, 스테퍼(62%), 헬스사이클(26%), 짐볼(20%), 폼롤러(14%)도 인기가 높다.

G마켓에서도 지난달 7일부터 이달 8일까지 요가·필라테스용품 판매량은 45% 증가했고, 웨이트기구(24%), 다이어트용품(22%)도 늘었다. 롯데마트몰 역시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5일까지 아령과 요가밴드, 훌라후프 판매가 각각 211.8%, 58%, 16.1% 신장했다.

대형마트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이마트의 1~2월 헬스기구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6% 증가했고, 아령은 4.7% 올랐다. 다이어트 식품인 선식은 9.3% 늘었다. 롯데마트 역시 2월 한 달간 피트니스용품과 실내 웨이트용품 매출이 1월에 비해 각각 3.2%, 2.3% 뛰었다.

통상 연초는 다이어트와 건강을 위해 사람들이 헬스장을 찾아 운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트니스 클럽을 찾는 회원이 급감했다. ‘쭈바 댄스’ 강습 등을 통한 확진자가 늘면서 홈트레이닝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유통가는 높아진 ‘나홀로 운동’ 수요를 잡기 위해 적극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이마트는 25일까지 2주일간 바이크, 요가매트, 레깅스, 스쿼트밴드, 푸시업바 등

다양한 종류의 홈 피트니스용품 할인전을 실시한다. 대표 상품으로는 부드러운 페달링과 높은 공간 효율성을 지닌 ‘순리 엑스 바이크 x10’을 기존 15만9000원에서 10% 할인한 14만3100원에 선보이고, 아디다스 스쿼트 밴드 3입세트는 1만4200원에, 활용도 높은 아이워너 패브릭 튜빙세트, EVA 스포츠매트를 각각 9900원에 판매한다. 홈플러스도 ‘전 국민 건강 UP 프로젝트’ 기획전을 통해 건강 보양식과 홈트레이닝용품 등을 할인 판매한다.

쿠팡은 국내외 인기 브랜드 운동 용품 8만여 개를 한데 모아 홈트레이닝 기획관을 마련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쿠션감과 충격 흡수가 뛰어난 요가 등 개인운동에 활용도가 높은 ‘스포뱅크 NBR 요가매트 10mm’를 8000원대에 판매하며, ‘휠라 짐볼’은 1만2000원대에, 하체 집중 운동에 제격인 ‘이고진 스쿼트 운동기구’는 5만2000원대에 선보인다.

롯데마트몰은 나홀로 운동족을 위한 등산용품 및 스포츠용품을 선보인다. 끈을 어깨와 허리에 고정시켜 불편함을 최소화한 ‘마운틴이킵먼트 힙색’을 1만900원에, 언제 어디서나 편하게 앉을 수 있는 ‘스포츠550 캠핑매트(1인용)’를 9800원에, 휴대가 간편한 ‘아이언메쉬 캠핑테이블’을 3만9000원에 판매한다. 또한 롯데마트 전국 모든 점포에서도 등산용품 및 스포츠용품을 선보이면서 등산 필수품인 ‘스마트 등산배낭(블랙/네이비)’을 1만9800원에, ‘베이지 등산스틱(2개입)’을 1만3800원에 판매한다.

변지현 롯데마트 마케팅전략팀장은 “최근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야외활동이나 운동을 혼자 즐기려는 고객들을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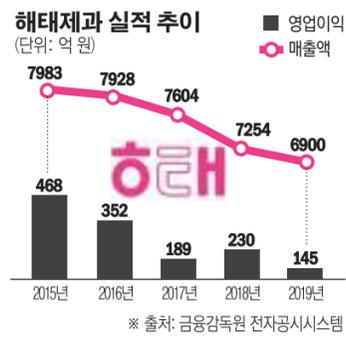
남주현 기자 jooh@



해태제과, 재무구조 개선 위해 ‘금융통 모시기’

20일 정기 주총서 박기석 전 우리銀 부행장 사외이사 선임 추진

해태제과식품이 주총을 앞두고 박기석(사진) 전 우리은행 부행장의 사외이사 선임을 추진하고 있다. 수익성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해태제과가 금융권 전문가 영입을 통해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다. 해태제과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36.8%나 줄어들었다. 영업이익은 2017년 189억 원을 기록한 이후 2018년 230억 원으로 개선되는가 싶더니 지난해 다시 100억 원대로 떨어졌다.

해태제과는 박 이사에 대해 “다년간 은행에 재직하며 금융업계에서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이사회에 참여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당사의 건전한 재무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아이스크림 사업 부문의 물적분할 후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해태제과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박 이사의 역할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태제과는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신정훈 대표의 중임 건 또한 다룰 예정이다. 신 대표는 운영달 크라운해태홀딩스 회장의 사위로 2008년부터 해태제과를 이끌고 있다. 다만 허니버터칩 이후 이렇다 할 성과가 없어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인플루언서 화장품 ‘유어브랜드’ 엘롯데 론칭

매월 신규 론칭 MZ세대 공략

밀레니엄 세대에 가장 핫한 트렌드 중 하나인 인플루언서 화장품, 새로운 콘셉트의 신박한 화장품이 매월 새롭게 론칭된다.

롯데백화점은 업계 최고의 전문가들과 셀럽들이 직접 디렉션한 뷰티 플랫폼 ‘유어브랜드’가 롯데백화점의 온라인 통합 커머스인 ‘엘롯데’를 통해 단독 론칭했다고 15일 밝혔다.

‘유어브랜드’는 트렌드 리더로서 영향력이 더 커지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브랜드를 론칭할 수 있는 뷰티 플랫폼이다. 마케팅 플랫폼 운영사인 ‘아이엠퍼랩’과 화장품 개발 및 브랜딩 전문 ‘인앤스비’, 유명 화장품 제조 생산 회사인 ‘코스맥스’와 손잡고 1년여의 준비 끝에 탄생했다. 유통은 국내 최대 유통기업인 롯데백화점이 전담한다.

국내 화장품 시장은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등 기존 브랜드로 대표되는 1세대를 시작으로 네이처리퍼블릭, 더페이스샵, 미샤 등 중저가 브랜드가 이끈 2세대, 닥터자르트, 아이소이 등 드러그스토어 확대에 따른 K뷰티 3세대에 이어 티르티르, 롬앤 등 인플루언서 뷰티 브랜드가 내놓는 4세대 화장품 시대를 맞고 있다. 롯데백화점은 인플루언서 화장품 출시를 통해 밀레



니얼, Z세대로 불리는 2030세대를 겨냥하겠다는 전략이다.

‘유어브랜드’에서 먼저 선보이는 인플루언서는 소유, 린지, 예니엘이다.

패션모델 ‘소유(@Soyou_park)’의 브랜드 ‘갯티시’는 아이라이너, 클리터라이너를 뷰티 크리에이터 ‘민지(@a_zi_zi)’는 ‘히파지지’라는 메이크업 브랜드를 론칭, 메트립스틱(5가지 색상)을 선보인다.

뷰티·주얼리 디자이너 ‘예니엘(@y_aile)’은 ‘엘드라보(Aile de la peau)’ 브랜드로, 수분포탄크림과 톤업 크림을 론칭한다. 롯데백화점과 ‘유어브랜드’는 ‘엘롯데’를 시작으로 4월에는 롯데백화점 잠실점 언앤더뷰티 및 본점 영플라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선보일 계획이다.

‘유어브랜드’는 향후 뷰티 인플루언서와 패션 크리에이터, 스포츠스타(야구선수, LPGA 프로골퍼 등), 패션모델 등 셀럽들이 참여할 계획이다. 박미선 기자 only@



역발상 상품으로 내수경기 활성화

15일 서울 홈플러스 강서점에서 모델들이 ‘역발상 아이디어 상품’을 소개하고 있다. 홈플러스는 위축된 내수 경기 회복을 위해 차별화된 관점의 기획상품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몸통으로 구성된 ‘짜지 않은 몸통 건오징어’, 나물류 통조림으로 만든 ‘나물 캔’ 등을 전국 점포와 온라인몰에서 판매한다.

사진제공 홈플러스

첨가물 없는 고품량 비타민C ‘휴온스 메리트C’

비타민C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무기질과 함께 5대 영양소에 포함되는 필수 영양소다. 결합조직 형성과 기능 유지에 필요하며, 항산화 물질로 유해산소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체내에서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통해 섭취해야 하는데, 흡연·음주 여부나 운동 능력, 불포화지방산 섭취량 등에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 섭취 필요량이 다르다.

휴온스의 고품량 비타민C 브랜드는 △휴온스 메리트 C&D △휴온스 메리트C&

B로 라인업을 확대, ‘프리미엄 고품량 비타민C’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휴온스 메리트C 시리즈는 의사가 추천하는 프리미엄 고품량 비타민”이라며 “입소문을 타고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휴온스 메리트C 시리즈는 세계적인 비타민 제조사인 DSM의 프리미엄 원료에만 부여되는 Quali-B, Quali-C, Quali-D 인증을 받은 원료만을 사용한다. 백색의 고운 분말 형태 제품이다. 분말 타입은 알약으로 만들 때 들어가는 고흡물 등의 부



형제가 들어가지 않아 알레르기, 위장장애를 막고 누구나 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휴온스 메리트 C&D는 하루 한 포로 간편하게 고품량 비타민C와 비타민D를 함께 복용할 수 있는 복합 비타민이다. 비타민C(2000mg)와 비타민D(1000IU)가 국내 최고 함량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주식 반대매매 11년 만에 최대... '강통 계좌' 주의보

코로나 사태에 폭락장 이어져 코스닥 52주 신저가 종목 속출 3월 반대매매 하루 평균 137억 미수금도 8년 7개월 만에 최대

최근 국내 주식의 주가가 폭락하면서 주식 반대매매 규모가 약 11년 만의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인투자자의 '강통 계좌'가 속출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3월 들어 12일까지 주식 반대매매 규모는 하루 평균

137억 원으로 2009년 5월(143억 원) 이후 10년 10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하루 평균 반대매매 규모는 지난해 12월 94억 원에서 올해 1월 107억 원, 2월 117억 원 등으로 매일 증가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연이어 폭락하면서 주식 미수금이 쌓이고 증권사가 강제 처분에 나서자 부실 주식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미수금은 개인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을 사고 사흘 후 대금을 갚는 조건이 외상을 뜻한다. 반대매매는 투자자가 외상으로 산 주식(미수거래)에 대해 결제 대금을 납입하지 못하면 증권사가 주

을 강제로 팔아 채권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13일 코스피지수는 1771.44로 올해 들어 19.4% 내렸고 코스닥지수는 524.00으로 21.8% 떨어졌다.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52주 신저가 종목이 속출하면서 반대매매 규모가 계속 커진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반대매매가 늘어나면 투자자 손실은 더욱 커진다. 증권사는 미수거래 투자자들이 3거래일 후 돈을 갚지 못하면 4일째 되는 날 남은 주식을 강제로 팔 수 있다. 이 경우 보유 주식을 다 팔아도 빌린 돈을 다 갚지 못하는 '강통 계좌'가 생길 수도 있다.

미수금도 이날 들어 12일까지 하루 평균

2246억 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미수금 규모는 월간 기준으로 2011년 8월(2644억 원) 이후 8년 7개월 만의 최대 수준이다. 하루 평균 미수금도 지난해 12월 1769억 원에서 올해 1월 1958억 원, 2월 2116억 원 등으로 역시 증가했다.

미수금이 증가한 이유는 미수 거래를 했던 개인투자자들이 4일째 외상 거래로 샀던 주식을 팔거나 보유한 현금으로 빚을 갚아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해서다.

코로나19 사태로 향후 폭락장이 이어질 경우 미수금, 반대매매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날 11일 미수금은 2968억 원까지 커져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13일 이런 점을 고려

해 16일부터 6개월 동안 공매도 금지 조치와 함께 증권사의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는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주식에 대한 과도한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어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 비율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준의견서를 발급하기로 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3일 시장안정 대책 발표 당시 "증권사들은 우리 자본시장 생태계의 구성원인 만큼 투자자 이익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해 담보비율 하락에 따른 기계적인 반대매매를 자제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정희 기자 ljh@

공매도 거래 6개월간 전면 금지 상장사 '자사株 취득 한도' 완화

금융위, 시장안정 조치 시행 개미 반대매매 피해 최소화 신용융자 담보비율 의무 면제

국내 주식시장은 앞으로 6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전면 금지된다.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는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세 번째다.

또 상장사가 주가 방어에 나설 수 있도록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과도한 반대매매로 피해를 입는 개인투자자를 구제하기 위해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도 면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오후 4시 임시금융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은성수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0일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 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 주가가 하루 10%씩 하락하는 시장 상황에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며 "시장의 불안심리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주식시장 안정화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금융위원회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보다 강한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한다"고 말했다.

이에 16일부터 9월 15일까지 6개월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다. 6개월 뒤 시장 상황을 판단한 후 연장 여부 검토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금지기간은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당시 8개월 금지보다 짧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당시(3개월)보다 2배

길다. 또 6개월간 상장사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가 완화된다. 지금까지 상장사들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약 10거래일에 걸쳐 나눠 취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려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이 기간 신용융자 담보비율 유지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증권사 내규에서 정한 담보유지비율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제재를 받지 않도록 비준의견서를 발급한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금융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하면서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신철 기자 camus16@

일주일 동안 국내 펀드 유형별 순자산액 변동 (단위: 억 원)

	주식형	채권형	파생상품형	부동산형	혼합자산형
3월 5일	81조9464억	122조9318억	49조1310억	104조4038억	37조3841억
3월 12일	73조1647억	122조4533억	45조8252억	105조3647억	36조6410억

국내 펀드 순자산 일주일 새 16兆 급감

주식형 8.7兆 감소폭 최대 부동산형 펀드는 1兆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국제 금융시장의 충격으로 국내에 설정된 펀드 순자산이 일주일 새 16조 원 넘게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2일 기준 현재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공모·사모 펀드의 순자산은 총 685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일주일 전인 5일 701조 7000억 원보다 16조 4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유형별로는 주식형 펀드가 81조 9000억 원에서 73조 2000억 원으로 약 8조 7000억 원 감소해 가장 감소폭이 컸고, 채권형도 123조 원에서 122조 5000억 원으로 5000억 원가량 줄었다. 파생상품형 펀드 순자산은 49조 1000억 원에서 45조 8000억 원으로 3조 3000억 원가량 급감했다. 혼합자산형 펀드도 순자산이 37조 4000억 원에서 36조 6000억 원으로 7000억 원 넘게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부동산형 펀드는 104조 4000억 원에서 105조 4000억 원으로 순자산이 1조 원 증가했다.

공모펀드 순자산이 280조 4000억 원에서 268조 원으로, 12조 4000억 원 감소해 전체 펀드 순자산 감소액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PEF를 제외한 사모펀드의 순자산은 421조 3000억 원에서 417조 3000억 원

으로 4조 원가량 감소해 비교적 손실 규모가 작았다. 펀드 순자산의 급감은 최근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공식화에 기반한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침체 우려에 주가지수가 폭락하고 안전 자산으로 분류되는 채권 가치도 하락했다.

코스피는 증가 기준으로 5일부터 12일 까지 일주일 만에 250.93포인트(12.03%)나 떨어졌다. 특히 9일에는 4.19% 폭락하며 2018년 10월 11일 이후 최대 낙폭을 기록했다.

통상 안전자산인 채권은 일반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가치가 상승하지만, 금융시장이 극심한 변동성을 보이면서 현금 수요가 커져 채권 가치도 하락했다. 채권시장에서 지표물류 통용되는 3년 만기 국고채의 금리는 장 마감 시점을 기준으로 5일 연 1.051%에서 12일 연 1.062%로 상승했다. 이는 채권가격의 하락을 의미한다.

펀드 투자금이 대거 이탈한 것도 순자산 감소에 영향을 줬다. 국내 펀드 설정액은 5일 696조 5000억 원에서 12일에는 691조 5000억 원으로 5조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펀드 순자산은 지난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의 대규모 손실과 라임자산운용의 환대 연기 등 약재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증가해 지난달 7일 사상 처음으로 700조 원을 넘긴 바 있다.

이후 펀드 순자산은 지난달 19일 708조 5000억 원으로 고점을 기록한 뒤 차츰 감소하고 있다.

이정희 기자 ljh@

글로벌 증시 폭락에 직구族도 '팔자'

3주간 1억7639만 달러 순매도 외화 주식 보유액 13.5% 줄어

해외주식 직구족 최근 3주간 순매도 추이 (단위: 백만USD, 2월24일~3월12일)

유로시장		미국		일본		홍콩		중국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매도	매수
32.75	7.83	3431.76	3360.9	79.34	29.9	335.94	277.89	116.16	167.9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충격에 국내 투자자들이 보유 중인 해외주식을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 사이트에 따르면 코로나19 사태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에서 주가가 일제히 폭락하기 시작한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약 3주간 해외주식 매도액은 40억 4304만 달러(4조 9244억 원)에 달했다.

이는 1월 한 달간의 매도액인 23억 7801만 달러보다 41.2%나 많은 수준이다. 매수를 제외한 순매도액은 1억 7639만 달러(2148억 원)로 집계됐다.

해외주식 순매도액은 미국 주식이 7086만 달러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홍콩(5805만 달러), 일본(4900만 달러), 유로시장(2492만 달러) 등 순이었다. 유로시장은 유럽의 국제증권에탁기관인 유로클

리어와 클리어스트림을 통해 보관 중인 주식 규모를 말한다.

'해외주식 직구족'은 이 기간 유일하게 중국 주식 5177만 달러어치를 순매수했다. 중국 증시는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먼저 발생해 큰 폭의 조정을 겪은 뒤 회복세를 보였다.

반면 미국과 유럽은 뒤늦게 코로나19 확산자가 늘면서 글로벌 증시는 폭락장세를 기록했다. 뉴욕증시의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지난달 24일 3.56% 폭락하는 등 5거래일에 걸쳐 총 3,580포인트 떨어졌다. 한편 국내 투자자들의 외화 주식 보유액

은 이달 12일 기준 145억 2026만 달러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21일(167억 8079만 달러)과 비교하면 13.47% 감소한 수준이다. 외화주식 보유액이 줄어든 것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을 팔아치운 데다 주가 급락으로 평가액이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영환 대신증권 연구원은 "미국 증시에서 주가가 단기간에 큰 폭으로 하락했고 공포심리가 과도한 측면이 있다"며 "미국 증시는 주요국 정부의 통화·재정정책 공조로 점차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정희 기자 ljh@

비트썬 지수 (2020년 3월 15일 17:00, KST)

종류	종목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전일대비 등락(%)
비트코인	비트코인캐시	271,200	-8,000	(2.9%▼)
	리플	192	-8	(4.0%▼)
	라이트코인	45,160	-1,530	(3.3%▼)
	대시	59,350	-3,400	(5.4%▼)
이더리움	모네로	46,800	-3,350	(6.7%▼)
	비트코인골드	7,760	-320	(4.0%▼)
	이더리움클래식	5,980	-40	(0.7%▼)
	퀀텀	1,528	-42	(2.7%▼)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수요 몰린 중·저가 아파트... 거래 끊긴 고가 아파트

대출 규제에 공사가격 인상까지... 주택시장 '두 얼굴'

노원·도봉·강북구 집값 상승... 봉천 '생모리츠타운' 1.5억 쯤층 초고가 밀집 강남 거래 줄며 반포 '래미안퍼스티지' 1.5억 하락 저가 아파트 '깍 메우기' 지속에 부동산 매매시장 양극화 심화

작년 12·16 대책부터 올해 2·20 대책까지 정부의 잇단 규제에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다. 정부 규제가 고가 주택을 집중 겨냥하고 있는 만큼 강남 지역은 거래가 지체를 감춘 가운데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 반면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서울 강북 등 외곽 지역에는 수요가 몰리며 가격이 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아파트 공사가격 공개 등 고가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양극화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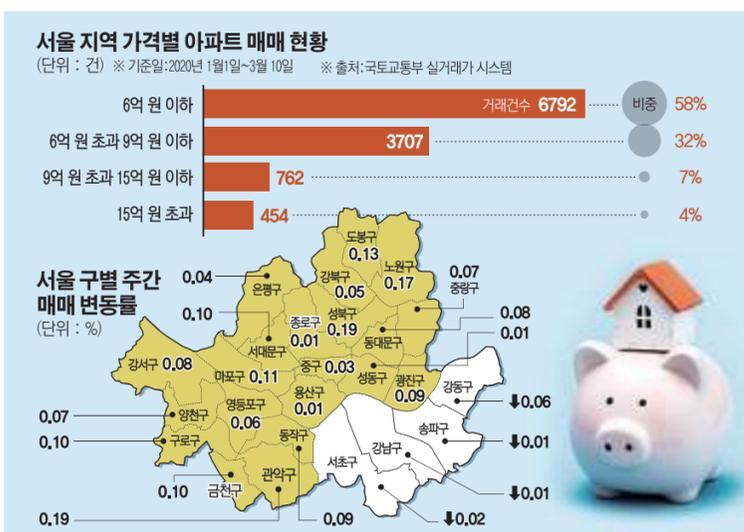
1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서울 지역에서 총 1만 1715건(10일 기준)의 아파트 거래가 신고된 가운데 6억 원 이하가 6792건(58%),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3707건(32%),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762건(7%), 15억 원 초과 454건(4%)이 거래

됐다. 6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가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데 비해 9억 원 이상의 고가 아파트의 거래는 상대적으로 부진했다.

집값 흐름도 비슷한 모습이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3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보다 0.04% 오른 가운데 관악구(0.19%), 성북구(0.19%), 노원구(0.17%), 도봉구(0.13%) 등 저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실제 노원구 중계동 중앙하이츠1(전용면적 84.94㎡)와 도봉구 방학동 신동아타워아파트(전용면적 84.94㎡)가 이달 각각 5억8200만 원, 3억2300만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새로 썼다.

구로구 신도림동 신도림퍼티움 전용면적 84.62㎡은 6일 5억9000만 원에 팔리며 신고가를 기록했으며 영등포구 도림동 한라아파트 전용 84㎡도 5억7400원으로



최고가에 거래됐다. 관악구 봉천동의 경우 2억6800만 원에 거래되던 생모리츠타운(전용면적 64.31㎡)은 몇 달 새 1억5000만 원가량이 오르며 4억5000만 원에 팔렸다. 노원구 H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주변 환경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잘 오르지 않는 지역인데 최근 집값이 오르고 있다"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다 보니 투자 목적으로 들어오는 수요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구(-

0.01%)와 서초구(-0.02%), 송파구(-0.01%), 강동구(-0.06%) 등은 일제히 하락했다. 강남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 아파트 가격이 모두 약세를 보인 것은 지난해 3월 이후 1년 만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초구 반포동 반포래미안아파트 전용면적 112.95㎡은 작년 11월 30억4000만 원에 거래됐으나 이달 2일엔 25억5000만 원에 거래되며 5억 원가량이 떨어졌다. 지난해 말 23억5000만 원에 거래됐던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59.89㎡도 지난달 21억9500만 원에 팔렸다.

강남 L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을 사려고 해도 증명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 거래 자체가 불편해지면서 거래량 역시 줄고 있다"며 "정부가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 집주인들도 못 버티고 집값을 내려부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가 아파트 하락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보유세 향방을 결정할 공공주택 공사가격 예정 금액이 이달 공개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미 앞서 공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사가격 신뢰성 제고 방안'에서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공사가격 현실화율을 현행보다 크게 높일 것이라고 사전 예고했다.

이런 상황에서 저가 아파트의 '깍 메우기'(가격 따라잡기) 역시 지속될 것으로 보여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르는 상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며 "다만 코로나19로 글로벌 경기 전반적으로 침체되면서 부동산 시장 심리 역시 위축될 수 있어 이 같은 현상이 얼마나 길지는 예단하기 쉽지 않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청량리역 주변 개발 시동 거나

국토부 '광역환승센터' 연구 용역 9년 만에 유휴부지 개발 재추진 인근 아파트 석 달 새 3억 '경증'

서울 청량리역 일대 '천지개벽'을 위한 마지막 퍼즐이 맞춰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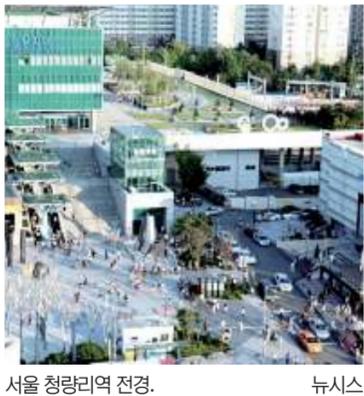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이르면 다음 달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과 함께 '청량리역 공간구조 개선 및 광역환승센터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시작한다. 늘어나는 청량리역 교통량에 맞춰 환승시설을 개선하고 역 주변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다.

현재도 청량리역엔 도시철도 노선만 네 개(1호선·경의중앙선·경춘선·분당선)가 지나간다. 도심과 강남권까지 10~20분 안에 도착할 수 있다. 여기에 강북횡단선과 면목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C노선까지 개통하면 '8중 역 세권'이 된다. 역사(驛舍) 공간 재배치가 필요한 이유다.

대광위와 서울시 등에서 청량리역을 지하 7층까지 파 내려가 철도 플랫폼과 버스 환승센터 등을 배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여섯 개 철도 노선과 버스 환승센터 등을 지하에 배치하고 그 위로 상업·업무 시설을 개발한 프랑스 '라데팡스' 식 개발이다. 프랑스는 이 같은 방식으로 라데팡스를 파리를 대표하는 신도심으로 조성했다.

대광위 등에서 라데팡스처럼 역사 공간을 재배치하면서 주변 유휴부지 등을 함께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민간자본 등을 유치해 역사와 그 주변에 공공주택이나 오피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유력한 부지는 청량리역 뒤편 철도차량 정비고 부지가 꼽힌다. 이 땅에선 2011년에도 GS건설 주도로 민간개발 사업이 추진됐다. 정비고 일대 3만4421㎡를 31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세 동과 공원 등으로 개



서울 청량리역 전경. 뉴스시

발한다는 게 GS건설과 서울시 계획이었다. 이후 정비고 이전비용 부담 문제 등으로 민간 개발이 무산됐지만 서울시 등에서 이 부지를 공공주택지구로 개발하는 방안을 수차례 검토했다고 알려졌다. 직주 근접성을 선호하는 최근 부동산 시장 흐름 때문이다.

청량리역 개발이 가시화되면 그러잖아도 뜨거운 이 지역 부동산은 더 달아올라 수밖에 없다.

지난해 청량리 일대 재개발 단지 3곳(해링턴플레이스·한양수자인 192 주상복합·롯데캐슬 SKY-L65)에서 총 2358가구를 분양했는데 청약자 2만8247명이 몰렸다.

지난해 연말엔 청량리 일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미주아파트도 재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1089가구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한 인근 아파트 중 가장 대단지여서 투자자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9억5000만 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 전용 102㎡형은 최근엔 12억5000만 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한 그래도 교통 호재 때문에 몸값이 오르는 청량리 일대 지역을 중심으로 통합 개발된다면 집값 상승세가 더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종화 기자 pbell@

현대건설, 배당금 올리고 전자투표제 도입

주주 친화 경영 강화

현대건설이 배당금을 상향하고 전자투표제를 도입하는 등 주주친화 경영 강화에 나선다.

현대건설은 현금 배당액을 1주당 100원 상향해 보통주 600원, 우선주 650원으로 상향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2월 결산 배당 보통주 1주당 500원, 우선주 550원보다 올린 것으로 총액(약 669억 원)으로는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액된 금액이다.

회사 측은 영업이익, 잉여현금흐름 등

경영 성과뿐 아니라 예측 가능한 사업 환경 등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현대건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배당금에 영향을 미치는 이익 잉여금도 2019년 말 기준 5조3252억 원으로 2018년 말 대비 약 3400억 원가량 증가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은 19일 개최 예정인 '제70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이 한국에 탁월해진 'K-eVote'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채택을 도입할 계획이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

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주총이 열리기 전 10일 동안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유도해 주주 권익을 향상시키는 주주친화 정책의 일환이다.

현대건설은 주주들의 편의 및 안전에 대한 숙고를 위해 법정공시 기간보다 2주 앞선 지난달 19일 주주총회 안건을 공시하기도 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앞으로도 주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구축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금주의 분양캘린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새 아파트가 더 귀해진 가운데 이번 주 1476가구가 분양시장에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총 3개 단지, 1476가구가 분양한다.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 9단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 더플래티넘 해운대',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 대방디엣시

티 엘리움' 등이 청약자를 받는다.

7개 단지에서 청약 당첨자를 발표한다.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 더플래티넘 오목천역', 경북 안동시 운흥동 '안동운흥 A2 행복주택',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 대성베르힐' 등에서 청약 당락이 갈린다.

계약을 하는 단지는 14곳이다.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 푸르지오 SK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 중흥S클래스',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A12 신혼희망타

운' 등이 계약을 진행한다.

견본주택은 4개 단지에서 문을 연다. 경기 양주시 장현동 '송추 북한산 경남아너스빌', 부산 남구 용호동 '빌리브센트로',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 금호어울림 더파크 2차', 여주시 신기동 '대광로제비앙 센텀29' 등이 20일 견본주택을 개관한다.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2차 화성파크드림',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장현 영무예다음'에선 사이버 견본주택으로 같음한다.

날짜	구분	시	구시군	읍면동	아파트명	계약/발표	지역	시행사	장현동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													
3/16 (월)	계약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공공분양) 1순위(서울1년이상가주)	3/18 (수)	계약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	시흥시													
													경기	수원시	매교동	매교역푸르지오SK뷰 (~3/24)	부산	기장군	기장읍	부산기장A8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20)					
													인천	남동구	구월동	구월뉴그리안 (~3/18)	광주	남구	임암동	광주효천1(국민임대) (~3/20)					
3/17 (화)	발표	부산	남구	대연동	대연삼정그린코아더베스트 (~3/18)	3/19 (목)	발표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충남	아산시	탕정면	아산탕정2-A2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3/20)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서면스위트엠골드에비뉴 (~3/18)	부산	북구	덕천동	한화 포레나 부산덕천		
																충남	공산군	금산읍	e편한세상금산센타하임 (~3/18)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송추북한산경남아너스빌		
3/18 (수)	발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공공분양) 1순위(서울1년이상가주)	3/20 (금)	오전	부산	남구	용호동	빌리브센트로	전남	순천시	서면	순천금호어울림더파크2차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 1순위	대구	남구	봉덕동	봉덕2차화성파크드림 (사이버)		
																경북	안동시	운흥동	안동운흥A2(행복주택)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 (사이버)		
3/18 (수)	계약	경기	하남시	학암동	위례신도시중흥S클래스(A3-10) (~3/19)	3/20 (금)	발표	경기	하남시	감일동	하남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읍원래리채더퍼스트	충북	청주시	탑동	탑동힐데스하임 (사이버)		
																충남	천안시	청당동	천안청당서희스타힐스	경기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3/18 (수)	발표	서울	강서구	마곡동	마곡지구9단지(공공분양) 2순위	3/20 (금)	중주	경기	시흥시	장현동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경기	양주시	옥정동	옥정신도시대방디엣시엘리움	경기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부산	해운대구	중동	쌍용더플래티넘해운대 2순위	경기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시흥시
3/18 (수)	발표	인천	서구	당하동	검단신도시대성베르힐(AB3-1)																				

(주1) * = 오피스텔, * = 도시형생활주택 (주2) 1순위 청약접수를 시작하는 단지는 색으로 표시 (주3) 오른 단지는 사업진행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자료: 부동산114

서울시 '지하철 무인화' 재추진

교통공사에 완전 자동화 전 단계 'DTO' 시스템 도입 주문
18개월 전 "인력 감축 안돼" 노조 반발로 무산... 파장 예상

서울교통공사가 약 18개월 만에 '지하철 무인화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 2018년 9월 노동조합 반발로 무산됐던 사업인 만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15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올 초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에 미래를 위한 투자 방안으로 지하철 자동운전 시스템 도입 등을 주문했다.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가 현안 해결을 위해 미래에 대한 준비를 못 한 만큼 10년 이상이 걸리더라도 지하철 자동운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어 올해 지하철 자동운전에 대한 장기비전을 선포하고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라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무인화 사업은 2018년 신기술 개발 및 승객 안전 강화 취지로 지하철 8호선에 전자동운전(DTO) 시스템을 도입하려다 노조 반대에 부딪혀 취소됐다. DTO는 전동차의 출발, 정지,

출입문 개폐 등을 전자동화한 방식이지만 기관사 1명이 탑승해 비상사태에 대비한다. 완전 자동화 방식인 '무인운전(UTO)'의 전 단계이다.

당시 서울교통공사는 DTO를 도입하면 기관사가 승객의 승하차 과정을 볼 수 있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 지하철 5-8호선은 건설 단계부터 DTO 방식을 채택했다.

특히 서울교통공사는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지하철 무인운행 경험이 있어야 하는 만큼 DTO 도입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창출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부분의 국가가 철도운영권 주조 조건으로 전자동운전 기술을 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계획이 '인력 감축'을 위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2018년에도 서울시장 앞에서 3개월 여간 단식 투쟁과 천막 농성을 벌인 끝에 서울교통공사 측의 DTO 도입 계획을 철

회시켰다. 서울교통공사 승무 부문 직원은 현재 약 3300명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자동화는 근무시간 12분 연장 건보다 더 (노조의) 저항이 센 문제"라며 "다음 달 새로 출범하는 노조 집행부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상사국 대처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하철 무인화 얘기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외사업 등 미래 먹거리를 위해 DTO 도입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인력 감축과는 무관하다"고 잘라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서울교통공사의 미래 투자 방안으로 도시철도 건설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교통공사가 도시철도 운영에 집중하면서 건설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서울시의 판단이다.

김진희 기자 jh6945@
김종용 기자 deep@

오후 5시에 제공하는 유료정보서비스 이 기사는 channel FIVE에 게재했습니다



마스크 하고 벗꽃놀이 제주시 도두동 인근에 벚꽃이 활짝 핀 15일 마스크를 하고 외출 나온 시민이 봄나들이를 즐기고 있다. 뉴스이

LG전자 '블랙라벨' 상표 못쓴다

재판부 "선등록 상표와 유사"

LG전자가 가전제품 고급화 전략의 일환으로 사용하던 'Black Label' (블랙라벨)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로써 LG전자는 세탁기 등 가전제품의 'Black Label' 상표 사용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재판장 윤성식 부장판사)는 LG전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을 거절한 심결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확정됐다.

LG전자는 2017년 4월 전기세탁기, 공기청정기, 가정용 전기식 의류 건조기 등을 지정 상품으로 정해 'Black Label' 상표를 출원했다. 그러나 특허청은 "선(先) 등록상표와 표장 및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앞서 최모 씨는 2008년 7월 'Black label 블랙라벨' 상표를 출원했고, 이듬해 상표가 등록됐다. 지정상품은 전기식 온수 매트, 가정용 전기매트 등이다.

LG전자는 2018년 1월 1심 격인 특허심



LG전자 출원 상표(위), 선등록상표(아래).

판원에 거절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 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2심인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LG전자의 'Black Label' 상표가 선등록 상표인 'Black label 블랙라벨'과 글씨체 및 한글 음역 부분의 유무에 차이가 있기는 하나, 모두 '블랙라벨'이라 호칭해 표장이 동일·유사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LG전자가 출원한 상표의 지정 상품인 전기세탁기, 전기식 의류 건조기, 의류관리기 등과 선등록상표의 지정 상품인 전기식 온수매트, 전기매트는 비록 제품의 형상과 품질에 차이가 있기는하다"면서도 "두 상품 모두 생활 가전용품에 속해 품질, 생산, 판매 부문 및 수요자의 범위가 폭넓게 중첩돼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용 기자 deep@

법원 "징계 사유 중 일부만 안정돼도 해고 가능"

동료 성희롱·협박한 직원

해고한 롯데마트 손 들어줘

성희롱, 폭언 등을 사유로 직원을 해고한 회사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롯데마트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롯데마트 직원 A 씨는 2018년 6월 증정품 유용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 통보를 받았다. 이에 A 씨는 부당해고라며 지방노

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측이 주장하는 6개의 징계사유 중 2개만이 정당한 징계로 인정되며 비위 정도에 비하면 징계 양정이 과도하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구제신청을 받아들였다.

롯데마트는 이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인용을 취소해달라고 재심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6개의 징계사유 중 △증정품 유용 △직장 동료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동을 한 점 △비위행위 신고자에 대해 협박성의 전자우편을 보낸 것 △부하직원에게 과도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준 행위 등 4개를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증정품 판매 금액을 매장 소도구 구입 등 개인적 이익을 취할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회사의 금품을 유용한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A 씨가 공공장소에서 업무 수행 중이던 피해자 B 씨에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A 씨는 오히려 자신의 행위를 부인하면서 피해자에게 무고죄까지 언급했고, B 씨는 심리치료까지 받기에 이르는 등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 씨가 상급자에게 협박성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 근무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박영사
신간도서



신A5판 / 280P
정가 14,000원

기업성과에 날개를 다는 효과적 영업

관계지향적 영업

영업성공을 위한 고(高)성과 노하우 터득하기

"영업직에 막 입문하는 사람들과 현직에 있는 영업사원, 더 나은 실적을 고민하고 계시는 기업의 영업 관리자 분, 그리고 영업 연구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을 위한 도서"

저자약력



박정은
이화여대 경영대학 교수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 부원장
한국마케팅학회 부회장
한국마케팅관리학회 부회장
한국유통학회 부회장



곽민순
한국세일즈연구원 원장
(주)이음헬스앤케어 대표이사
진 김정문알로에 대표

“건강기능 입증 신토불이 농산물로 면역력 높이세요”

도라지, 기관지에 효과
쑥부쟁이, 알레르기 완화
취나물·달래, 염증 억제
농진청, 2369건 DB 구축



농진청직원인 염증과 아토피 피부염, 알레르기 증상의 완화 효과가 있는 '쑥부쟁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개인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마스크와 손 세정제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한 면역력 강화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코로나19는 아직 특별한 예방약이나 치료약이 없고, 결국 바이러스를 몸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현재까지 가장 큰 예방법이다.

실제로 코로나19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가장 치명적이다. 암과 고혈압, 호흡기 질환 등이 있는 경우 코로나19에 감염되면 중증으로 악화하고 심각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반면 고연령층이 아니면 기저질환이 없고, 건강한 상태라면 별다른 치료 없이 완치되기도 한다.

결국 개인의 면역력에 따라 완치율이 달라진다는 의미다. 면역력을 강화하면 기온 변화가 큰 환절기에 감기나 독감 등에 걸릴 확률이 낮아지는 것과 같다.

이런 관심에 따라 면역력을 높여주는 홍삼과 비타민, 유산균 등의 건강기능식품 매출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여기에 면역력을 높여주는 우리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2014년부터 면역기능이 우수한 국산 농식품 소재 발굴 연구를 지속해 온 농진청 흥청은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 대표적인 면역력 강화 농산물의 효과를 밝혀내기도 했다.

무침이나 청으로 주로 이용하는 도라지는 과거부터 기관지에 좋은 것으로 알려진 농산물이다. 농진청의 연구 결과 도라지는 자연살해세포(NK세포)의 활성화와 면역 관련 세포 증식을 높여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검증됐다.

쑥부쟁이는 염증 유발 물질 생성을 막아

알레르기를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돼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다. 봄철이면 흔한 취나물, 달래 등의 나물류는 체내 염증 유발을 억제하고, 면역세포를 보호하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다.

자두는 면역기능을 관장하는 'T세포'를 증식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T세포는 특히 수면 시간이 짧아질수록 기능이 약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홍화잎과 민들레 뿌리도 모두 면역세포를 증식하는 효과가 입증됐다.

인삼 등 약초와 버섯도 면역력을 높이는 식품 소재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면역기능 개선에 좋은 것으로 인정받은 기능성 식품 원료는 인삼, 홍삼, 동충하초 주정추출물, 상황버섯 추출물 등 24종이 있다. 인삼(백삼, 수삼 등) 뿌리에는 면역력 증진과 피로 개선 효과가 있는 진세노사이드, 폴리페놀 같은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다. 농진청은 인삼이 스트레스를 해소해 불안감을 줄이고 수면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입증했다.

버섯과 동충하초에는 면역세포 활성화와 면역물질 생성을 증가시키는 베타글루칸, 비타민 D 등이 많이 함유돼 있다. 특히 동충하초는 약 45%의 베타글루칸을 함유하고 있다.

이 외에도 항산화 성분이 풍부한 딸기·토마토·사과·블루베리 등의 신선한 과일과 염증 개선 효과가 밝혀진 마늘·양파·생강 등 양념 채소, 건강식품으로 잘 알려진 검은콩·우유·오미자 등도 면역력 증진에 좋다. 검은콩은 충분한 식물성 단백질·식이섬유·필수지방산을 함유하고 있고, 올리고당·안토시아닌·이소플라본·사포닌·피니톨 등의 생리활성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환자들의 회복을 돕는 식품으로 알려져 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면역력 강화에 좋은 기능성 농산물 정보는 농진청이 운영하는 '농식품올바로'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농진청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생강 등 166작목의 면역기능, 항비만, 항당뇨 등 50여 기능성 정보 2369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흥하철 농진청 기능성식품과장은 "환절기에는 일교차가 크고 미세먼지·꽃가루·황사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고, 감기·알레르기·비염 등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데 최근 코로나19의 유행으로 꾸준한 건강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며 "이럴 때에는 기능성 성분이 풍부한 우리 농산물을 섭취해 면역력을 높이고 면역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이혜곤 기자 pinvol1973@**

안전보건공단 '직업트라우마센터' 운영

전국 8곳서 산재 등 심리상담

정신질환 산재 현황
(단위: 명,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기준)



중대산업재해, 동료의 자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성폭력 등으로 정신적 외상(직업적 트라우마)을 겪는 노동자를 위한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은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이하 직업트라우마센터)를 전국 8곳에 설치하고 16일부터 정식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직업트라우마센터는 광주, 대구, 인천, 대전, 경남, 경기 부천, 경기서부(시흥시), 경기동부(성남시) 지역에 설치됐다.

센터에서는 임상심리사 등 심리 및 정신보건 관련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이 심리검사·심리상담·심리교육·사후관리 등 전문 상담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 프로그램은 노동자의 심리검사 실시 후 위험도에 따라 1차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전화 모니터링 등 사후 관리를 받는다. 상담 완료 후 15일 이내 결과가 제공되며 필요시 전문 치료기관과 연계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직**

업적 트라우마 관련 사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긴급 심리 안정화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집단 트라우마 교육도 제공한다. 상담 신청(1588-6497·www.otccmind.com)은 노동자 개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관련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해당 지역 안전보건공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박두용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직업트라우마센터가 직업적 트라우마를 겪는 노동자의 일터 조기 복귀 및 정신질환 예방에 기여하길 기대한다"며 사업장 및 노동자의 적극적인 이용을 당부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에너지공단-서부발전, 복지시설 온실가스 감축 MOU

한국에너지공단과한국서부발전은최근 '지속가능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서부발전은 취약계층 복지시설 등에 대한 건물의 에너지 효율 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에너지공단은 사업 추진에 따른 효율 개선 실적을 온실가스 감축 외부사업으로 인정하기 위한 방법론 개발 등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최근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제3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등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국가 기본계획이 발표되고, 할당배출권(KAU) 및 외부사업 인증 실적(KOC) 가격이 상승하면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고 있다.

이에 에너지공단은 그동안 건물 부문 외부사업 방법론 개발 등 건물 에너지 효율화 및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왔다. 특히 공공기관 에너지효율화 시책사업 연계 모델, 온실가스 감축 상생협력 사업 모델 등 다양한 사업 모델 개발·보급을 통해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세종=서병곤 기자 sbg1219@

똑똑, 나기도 될까요?

어린이들이 맘껏 뛰어놀 수 있는 세상인가요?
상처받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나요?
깨끗한 집에서 건강하게 지낼 수 있나요?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환경개선 사업을 통해 어린이가 더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아동을 먼저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주거정책이 어린이들을 먼저 생각할 수 있도록, 아동 주거권 증진을 위한 '집다운 집으로' 캠페인의 제도 개선 촉구 서명에 참여해주세요

아이들이 행복한 세상, 함께 해주세요
1588-1940 www.childfund.or.kr

“냉장고는 왜 다 똑같은까... 소비자에 선택권 넘겼죠”

W기획 인터뷰

양혜순 삼성전자 상무

“새로운 도전 없이는 사업 발전도 없을 것이라는 직원들의 강한 공감대가 있었습니다.”

양혜순(여·52) 삼성전자 생활가전사업부 상품전략팀장 상무는 최근 가전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맞춤형 냉장고 ‘비스포크’를 출시한 이유를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삼성전자는 작년 6월 생활가전 사업의 새로운 비전인 ‘프로젝트 프리즘’의 첫 번째 제품으로 비스포크를 공개했다. 프로젝트 프리즘은 소비자들의 라이프 스타일 취향이 반영된 맞춤형 가전을 만들어 가겠다는 것이다.

맞춤형 가전이라는 취지에 맞춰 비스포크는 소비자가 원하는 소재와 색상의 도어 패널을 직접 고를 수 있다. 양 상무는 비스포크 제품 기획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그는 “소비자들의 수요는 다양해지고 빠르게 변하고 있는데, 왜 냉장고는 획일적이냐는 질문에서 출발했다”며 “제조사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선택권을 주지 않았고, 소비자는 그 안에서 제품을 고르는데 익숙해진 것이 아닐까라는 의문을 가지게 됐다”고 말했다.

◇“비스포크 성공 이어받아 취향가전 계속 선보일 예정” = 기존에 없었던 제품을 선보이는 만큼 흥행 여부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사람도 있었다.

양 상무는 “소비자 개개인이 다양한 종류의 냉장고 타입과 색상을 조합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어느 가전 업체도 해보지 않는 시도였다”며 “원점부터 새롭게 모든 것을 바꾸자는 결정이었기 때문에 제품화 과정은 쉽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품들을 모듈로 설치했을 때 하나의 빌트인 제품처럼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 도어 재질



양혜순 삼성전자 상무는 “가사가 노동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과 색상도 하나하나 개발해야 했다”며 “소비자를 만족시키는 제품이 나온다고 해도 제조, 물류 등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인 여건을 효과적으로 갖춰나갈 수 있을지 고민이 많았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양 상무는 “SNS만 보더라도 소비자들이 개성 있는 집 꾸미기에 관심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소비자들이 지금까지 냉장고와 김치냉장고를 고를 때 색상, 재질 선택의 폭이 제한적인 만큼, (비스포크를 내놓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자신했다”고 말했다.

예측대로 비스포크는 출시되자마자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다. 삼성전자 냉장고 구매자 중 절반이 비스포크를 찾고 있는 것이다.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 사장은 올해 1월 기자간담회에서 “국내 냉장고 시장이 2018년까지 역성장하다가 비스포크가 나온 후 비스포크가 차지하는 부분에서 15% 성장했다”고 밝혔다.

양 상무도 “제품이 출시된 지 1년이 채 안 됐는데, SNS상에는 비스포크 냉장고

고객이 냉장고 타입·색상 조합 ‘비스포크’ 밀레니얼 세대 인기 ‘나’에 집중 취향가전 더 개발

일·육아 병행 ‘워킹맘’ 경험 살려 가사 시간 줄이는 제품 만들 것



로 개성 넘치는 주방 인테리어를 완성해 자발적으로 공유하는 적극적인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앞으로 출시될 프로젝트 프리즘 시리즈에 대해서는 “비스포크 이후 최근 나를 이해하는 똑똑한 세탁기, 건조기인 그랑데 AI(인공지능)까지 공개했다”며 “앞으로는 한층 더 ‘나’에 집중한 취향가전을 선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험의 시대... “밀레니얼 세대 성향 꾸준히 파악할 계획” = 맞춤형 가전을 통해 삼성전자는 글로벌 가전 시장에서 주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하이얼 등 중국 가전 업체들의 부상은 삼성전자에 위협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양 상무는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삼성전자를) 압박하고 있다”며 “AI,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는 제품이나 사업 간 영역이 모호해져 시장 변화를 빠르고 분명하게 읽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분석했다.

경쟁 업체들과의 격차를 벌리고자 삼성전자는 향후 10년을 ‘경험의 시대(Age of Experience)’라고 정의, 이에 맞는 상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대부분 사람이 제품을 구매할 때 편리함, 안정 등 삶의 긍정적 경험을 기대하는 만큼, 이에 맞는 제품을 선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양 상무는 “(경험의 시대에선) 주 소비층이 밀레니얼 세대로 이동하고 있는 경향이 뚜렷하다”며 “밀레니얼 세대는 나만의

취향으로 소비하고, 스스로의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 나간다. 단순히 좋은 제품만으로 그들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개인의 경험을 만족시켜야 하는 과제가 따른다”고 강조했다.

밀레니얼 세대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삼성전자는 동분서주하고 있다. 별도의 소비자 조사 외에도 판매 현장이나 온라인상 트렌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그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사내에 20~30대 직원들로 구성된 밀레니얼 커뮤니티를 운영해, 필요할 때 이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 시간 대폭 줄이는 가전 선보일 것” = 양 상무는 회사에서는 임원, 가정에서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며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는 “2002년 박사 과정을 마치고 막 삼성전자에 입사했을 때 아이들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다”며 “새로운 직장생활과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가족이 도움을 줘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딜 수 있었다”고 고마워했다.

이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며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소비자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가사노동을 대폭 줄이는 제품을 개발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양 상무는 “소비자들의 수고스러운 가사노동을 줄여주고, 가사가 노동이 아닌 즐거운 일이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다”며 “이런 관점에서 건조기, 식기세척기, 로봇청소기 등의 혁신에 관심을 두고 눈여겨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최근 집에서 자신의 여가를 보내고자 하는 ‘홈족’이 늘어나고 있다”며 “집이 카페, 레스토랑 등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런 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제품들에 관해서도 다양한 연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휴온스

빛 나는 하루
빛 나는 피부

이너셋 허니부쉬

THE 더 예뻐지고 19 허니부쉬
THE 더 아름답고 19 허니부쉬

이너셋 허니부쉬 ▼ 검색

*부원료 : 콜라겐, 엘라스틴, 히알루론산, 세라미이드 함유

고객센터 : 1800-4414



Class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세계 최경량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 설계기술력 - 뱅

Par5 3Shot 합산

+100_{yd} 더 나간다

1st Shot +30~50yd
세계 최고 고반발 드라이버

2nd Shot +30~40yd
세계 최초의 초고반발 우드

3rd Shot +30~40yd
세계 유일한 고반발 아이언

205g~ 44%더 가벼운
세계 최경량 기술

최적화 기술 적용

BIG BANG Light

모든 업체가 뱅골프의 고반발 기술을 따라하고 경량화 기술을 쫓아오지만 이미 뱅골프는 제3의 신기술 - 최적화 기술로 골프를 쉽고 편하게 하고 있다

PGA 톱 프로처럼 클럽을 만들어 준다면 나도 프로선수 처럼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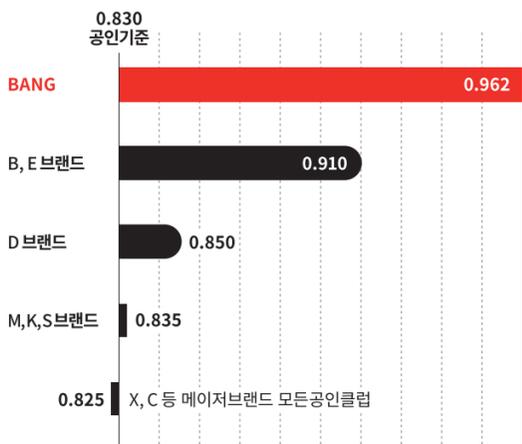
프로 골퍼가 잘 치는 것은 뛰어난 스윙 기술과 최적화된 골프채 덕분입니다. PGA 톱 프로는 첨단 스윙분석을 거쳐 그 프로에게 최적화된 수십 개의 클럽을 만든 후 그중에서 가장 감이 좋은 것을 골라 씁니다.

스윙기술이 부족해도 세계 최고 고반발 기술 + 세계 최경량 기술이 있는 뱅골프 클럽으로 PGA 프로처럼 최적화 기술을 적용한 골프채를 만들어준다면 나도 +30yd 더 잘 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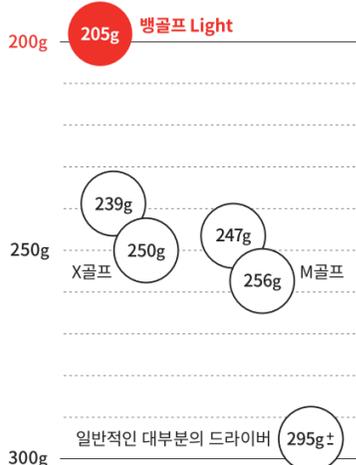
VVIP 고객님의 프로선수와 같은 관리 시스템으로 최적화 기술 적용 및 사용 후 수정 최적화

品格

고반발 기술 격차



경량화 기술 격차



최적화 기술 수준 격차

	BANG Light	타사
드라이버 사양 종류	999,000가지	획일적인 몇가지
드라이버 무게 종류	205g ~ 325g까지 120가지	단일 무게 혹은 몇가지
드라이버 강도 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SR, R, L 등 몇가지
우드/아이언 강도종류	XXX ~ R6까지 36가지	S, R 두가지 안팎
아이언무게 (9번 기준)	남 333g 여 312g	남 351g ~ 395g 여 326g ~ 368g
아이언 샤프트 종류	0.335 inch 최초 2~11번까지 번호별 샤프트	대부분 한가지 길이를 번호별로 잘라서 사용
헤드 무게 조정	120가지 헤드 무게로 헤드 교환 납을 사용하지 않음	납을 첨가하여 무게조정
드라이버 100yd 골퍼	스윙웨이트가 A8까지 있어서 누구나 딱 맞는 가벼운 클럽이 있다	무거워서 치기 불편하다

“소외계층의 후원자이자 해결사 되고 싶어”

나눔활동 앞장서는 박상훈 아이디병원 대표원장

외모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 행복 찾아주기 ‘은둔환자 캠페인’ 저개발국가 빈곤층 아동 후원...최근 대구경북 마스크 기부도

“기부란 받은 만큼 되돌려줄 수 있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상훈(사진) 아이디병원 대표 원장은 미용성형 전문병원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해 온 감사함을 기부 활동으로 되돌려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다양한 기부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에 아이디병원은 빈곤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의 든든한 후원자로, 외모에 대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은둔환자들에게 자신감을 찾아주는 해결사로 자리 잡고 가고 있다.

기업의 사회공헌이나 기부활동이 증가하면서 의료계에도 이 같은 문화가 조금씩 활성화되고는 있지만 재능·현금 기부 등 다양한 캠페인으로 국내외 기부 선행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전문병원들은 드물다.

박상훈 아이디병원 대표원장은 ‘일상에서 외모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행복을 찾게 도와주자’라는 미션을 세우고 기부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

박 원장은 “16년 전 주걱턱, 안면비대칭, 돌출입 등으로 평범한 생활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아픔을 극복하고 일상에서 행복을 찾게 해주자란 마음으로 병원을 설립했다”며 “이후 수많은 환자들이 아이디병원을 통해 자신감을 회복하고 사회생활에 복귀하는 모습에 보람을 느꼈으며 다시 사회에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나눔을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아이디병원의 첫 나눔활동은 10여년 전 해외 아동들의 후원이 시작이었다. 박 원장은 “저개발 국가에서 빈곤층 가정의 아이들이 병마와 악재로 인한 고통에 시달리는 현장을 목격한 후 이 아이들의 생명과 생존에 도움을 주고 싶어 후원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후 그는 생활환경의 어려움으로 고통이 심한 국내 아동들을 대상으로 나눔활동을 이어갔다. 8년 전부터 이어져오고 있는



병원의 어린이재단 캠페인은 가정환경이나 선천적 혹은 후천적 장애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밝은 미래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진행 중이다.

또 2년 전부터는 외모로 일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일상 복귀를 통해 행복을 찾게 해주고자 만든 은둔환자 캠페인도 시

작했다.

그는 “우리 사회에는 외모로 인해 자존감이 결여되고 취업을 포기하는 등 은둔형 외톨이가 상당히 많다”며 “부족한 부위에 대한 수술을 통해 이들은 높아진 자존감과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된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재능을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다는 점에 또 다른 감사함을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아이디병원은 이 같은 ‘은둔환자 캠페인’ ‘어린이재단 캠페인’ 등 꾸준한 ‘나눔 활동’과 함께 최근 코로나19 사태에도 대구경북 소외아동을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마스크를 기부했다.

박 원장은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해보며 기부도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다”며 “앞으로 미혼모 지원도 펼칠 예정이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또 다른 나눔활동을 위해 직원들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내외 소외계층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힘이 되어 드리고 싶다”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대로 된 기부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 인천세관장 인천세관장 김윤식 정보협력국장



정부는 16일자로 1급인 관세청 차장에 이찬기(왼쪽 사진) 인천세관장, 인천세관장에 김윤식(오른쪽) 정보협력국장을 임명했다.

이찬기 차장은 1965년 충북 충주 출신으로 연세대학교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5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특수통관과장, 천안세관장, 감사담당관, 심사정책과장, 기획재정담당관, 부산세관 통관과장, 관세국경관리연수원장, 통관지원국장, 심사정책국장, 기획조정관, 인천본부세관장을 역임했다.

김윤식 인천세관장은 1964년 전북 군산 출신으로 이리고, 국립세무대학을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대학원 정책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1985년 공직에 입문해 관세청 원산지지원담당관, 조사총괄과장, 통관기획과장, 인천세관 수출입통관과장, 관세청 정보협력국장 등을 역임했다.

세종=곽도흔 기자 soqood@

한국백화점협회 25대 회장에 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 선임

황범석 롯데백화점 대표가 한국백화점협회 25대 회장으로 선임됐다.



15일 한국백화점협회에 따르면 13일 서울 송파구 롯데호텔 시그니엘 비체나에서 2020년 정기총회를 열고 황범석 대표를 신임회장으로 결정했다.

황 대표는 1992년 롯데백화점에 입사해 상품본부 패션부문장, 영동포점장을 역임하고 2015년부터 롯데홈쇼핑 영업본부장과 상품본부장을 맡았다. 2020년부터 롯데쇼핑 백화점 사업부 대표를 맡고 있다.

한국백화점협회는 국내 유통업체들이 협력과 정보 교류 등을 하기 위해 결성한 사단법인이다. 회원사로 롯데, 신세계, 태평, 현대, AK플러자 등 총 6개사가 있다. 남주현 기자 jooh@

조좌진 전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대표 롯데카드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천

롯데카드는 조좌진 전 현대캐피탈아메리카 대표를 신임 대표이사 사장으로 추천했다고 15일 밝혔다.



롯데카드는 12일 임원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창권 현 대표는 상근 부회장으로 승진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김 부회장은 수익성 중심 경영과 장기적 안목으로 미래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왔다”며 “대주주가 바뀌는 상황에서도 조직 안정을 이뤘던 점을 높이 평가해 롯데카드에서는 처음으로 부회장 직책을 신설해 선임했다”고 말했다.

조 신임 대표 후보는 1967년생으로 현대카드 마케팅총괄본부장과 전략본부장, 올리버 와이만(Oliver Wyman) 한국대표 등을 지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조 후보는 신용카드 비즈니스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가”라고 말했다.

조 후보는 3월 말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정용욱 기자 dragon@

현직 약사가 그린 ‘마스크없무새’ 캐리커처

“다 팔렸어요, 없어요”만 되풀이 공적마스크 판매 약사 고충 표현

“나의 별명은 ‘마스크없무새’. 학명은 ‘Coronattamuns Mask Dafalithacus’ (코로나때문스 마스크 다팔리따쿠스).”

최근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약사들 사이에서 ‘마스크없무새’란 신조어와 함께 약사복을 입은 앵무새 그림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림 속에서 “마스크 다 팔렸어요. 마스크 없어요”란 말을 되풀이하는 마스크없무새 캐리커처는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공적 마스크를 찾는 손님에게 앵무새처럼 ‘마스크가 다 떨어졌다’는 답변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약사들의 처지를 잘 반영하고 있다.



이 그림을 그린 이는 경기도 고양시 한 약국에서 일하는 현직 약사 서다빈(34) 씨. 서 씨는 마스크가 동났다는 말을 반복해야 하는 어려움을 동료들에게 하소연하다가 앵무새 그림을 떠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홍석동 기자 hong@

캐나다·스페인 총리 부인 ‘확진’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의 부인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AFP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스페인 총리실은 산체스 총리의 부인 마리아 베고나 고메스 페르난데스 여사가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총리실

은 이들 부부가 스페인 정부의 이동제한 방침을 준수해 현재 관저에 머물고 있으며 건강 상태는 괜찮다고 설명했다.

앞서 12일엔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의 부인인 소피 그레고어 여사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그레고어 여사는 물론 트뤼도 총리도 14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총리실은 밝혔다.

현대차 ‘현대 커미션’ 올해 전시 작가에 ‘아니카 이’ 선정

영 테이트 모던 공동 프로젝트...10월 6일부터 3개월간 전시

현대자동차는 영국 현대미술관 테이트 모던에서 개최되는 ‘현대 커미션’의 2020년 전시 작가에 ‘아니카 이(Anicka Yi·사진)’가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현대커미션은 2014년 현대차와 테이트 미술관이 체결한 11년 장기 후원 파트너십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대규모 전시 프로젝트로서, 현대미술의 발전과 대중화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매년 작가 한 명에게 테이트 모던 중심부에 위치한 초대형 전시장 터바인 홀에서 새로운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선정된 아니카 이는 10월 6일부터 내년 1월 10일까지 약 3개월간 터바인 홀에서 여섯 번째 현대 커미션 전시를 진행

한다.

예술과 과학의 관계성을 탐구하는 예술가인 아니카 이는 새로운 형태의 생명, 지능의 발달에 관한 철학적 연구에 주목하는 동시에 이 주, 계급 등에 대한 현대 사회의 다양한 주제를 살피었다. 특히 관객의 여러 감각을 자극하고 활성화하는 작품과 흔히 사용되지 않는 비정통적 재료를 적극 활용하는 실험적인 작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현대차 관계자는 “감각적이며 탐구적인 작품을 통해 예술과 과학에 대한 논의에 새로운 가치를 더하는 예술가 아니카 이가 이번 현대 커미션 전시를 통해 변화하는 인간과 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창욱 기자 woogi@

인사

◆특허청 ◇과장급 승진 △등록과장 한상규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미순 △특허심판원 심판관 최진호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호근 △특허심판원 심판관 김근희 △특허심판원 심판관 문선흡 △특허심판원 심판관 허영한 △특허심판원 심판관 남인호 ◇부이사관 전보 △정보고객정책과장 마정운 △전기심사과장 임영희 △심판정책과장 전현진 △특허심판원 심판관 정인식 △특허심판원 심판관 조영길 ◇과장급 전보 △아이디어거래담당관 김기룡 △정보시스템과장 박재일 △상표심사정책과장 박주연 △기계전자상표심사팀장 이승관 △국제특허출원심사1팀장 김용웅 △스마트제조심사팀장 좌승관 △일반기계심사과장 임호순 △특허심판원 심판관 이경열 △특허심판원 심판관 제갈현
◆영화진흥위원회 ◇본부장 △기획운영본부장 최원규 △지원사업본부장 주성중

△정책사업본부장 김현수 ◇실장 △소통협력실장 태은정 ◇팀장 [기획운영본부] △기획예산팀장 김영구 △성과혁신팀장 박영지 △인사총무팀장 이대희 △재무회계팀장 구분석 △활영소건립TF팀장 유승완 [지원사업본부] △창작지원팀장 장광수 △독립·예술영화팀장 이선진 △국제교류팀장 김경만 △기술지원팀장 윤정환 [정책사업본부] △정책연구팀 도동준 △온라인정보화팀 최지원 △영화문화팀 이영선 [한국영화아카데미] △팀장 김홍천 [공정환경조성센터] △팀장 최경진 △블랙리스트후속조치TF팀장 김태형 [감사팀] △감사팀장 전운형
◆신협중앙회 ◇중앙본부 부문장 △신협행복나눔본부장 김성주 △자금금융부문장 최길용 ◇중앙본부 부부장 △총무본부장 박병준 △경영지원본부장 김일환 △디지털금융본부장 정인철 △사회적금융실장 김도원 △사회공헌실장 이경범 △지역금융본부장 추창호 △IT기획관리본부장 정

찬희 △IT개발본부장 유영일 △연수원장 안용환 △비서실장 배원호 △감독본부장 서근철 △금융소비자보호실장 박용남 △자금지원본부장 이성영 △신용관리본부장 김남식 △유가증권금융본부장 오동규 △투자금융1본부장 박유현 △투자금융2본부장 김수철 △연신투자심사실장 최상문 △공제지원서비스본부장 김택형 △리스크관리실장 오윤록 △정책공보담당 손석영 ◇지역본부장(지부장) △부산경남지역본부장 이동엽 △인천경기지역본부장 이성만 △대구경북지역본부장 곽광덕 △대전충남지역본부장 손재완 △광주전남지역본부장 이문규 △충북지부장 정경철 △전북지부장 김영하 △강원지부장 하동수 △제주지부장 허영진 ◇교수 및 연구위원 △신협 연수원 교수 홍원복 목성태 이상운 최동철 우영선 △신협 연구소 연구위원 임태규
◆경향신문 △독자서비스국 수도권1팀장 김성태 △문화사업국 사업1팀장 최연섭 △문화사업국 사업2팀장 심재건

부음

▲임정욱 씨 별세, 임대성(비즈테크파트너스 책임) 씨 부친상, 안철우(이투데이 금융부장) 씨 장인상 = 14일,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전 7시, 02-860-3500
▲김진기 씨 별세, 고준(AK홀딩스 상무) 씨 장인상 = 14일,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22호실, 발인 16일 오전 8시 30분, 02-2258-5940
▲허창식 씨 별세, 허지선(페덱스코리아 부장)·성욱(라인플러스 차장) 씨 부친상, 민재용(한국일보 경제부 기자) 씨 장인상 = 14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5호실, 발인 16일 오후 1시, 02-2072-2018
▲김정선 씨 별세, 김영훈(한국펀드평가 본부장) 씨 모친상 = 15일, 광주광역시 남문장례식장 401호, 발인 17일 오전 7시, 062-675-5000

허친국의 세계경제



전 충남대 무역학과 교수

열린 세계경제 질서, 멜트다운에 대한 공포

치사율로 보면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바이러스에 왜 선진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까? 국제적 공조의 리더십 부재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과거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의 문제여서 국경을 폐쇄할 것이니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었다.

중국 우한의 후미진 시장에서 퍼지기 시작한 코로나바이러스에 세계 경제가 떨고 있다. 지난주 미국의 주가가 목요일 기준으로 2월 고점 대비 30% 가까이 하락하며 세계적 주가 대폭락을 주도했다. 금요일 급반등으로 고점 대비 하락폭이 줄었으나 미국 주가가 하루에 10% 하락한 것은 필자가 미국에서 대학원 재학생이던 1987년 10월 이후 제일 큰 폭 하락이라고 하는데, 당시 학교를 방문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의 특강을 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1987년 주가 폭락은 지목할 수 있는 원인이 불분명했던 것과 달리 이번의 경우 기제가 명백하다. 특히 어떤 뉴스가 지난 목·금요일 이틀에 걸친 주가의 급락과 급등을 촉발했는지 명확히 볼 수 있다. 물론 바이러스가 근원(根源)이다. 그런데 투자자들이 공포에 휩싸여 주식을 투매(投賣)한 데는 신속한 국제적 공동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 남 탓만 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수요일 연설이 크게 작용하였다. 다음 날 아침 투자자들이 상황이 얼마나 악화될지 모르니 위험 자산을 일단 무조건

팔고 보자는 패닉을 조장했다. 트럼프의 연설이 수요일 저녁이었고 목요일 개장과 함께 주가 폭락이 시작되면서 둘 사이의 인과 관계를 쉽게 알 수 있다. 주가 폭락으로 '망한' 투자자들도 있을 것이다. 연말 대선을 앞두고 있는 트럼프도 포함된다. 그동안 전례를 깨는 좌충우돌 행보를 거듭하면서도 본인의 대통령 취임 후 오른 주가를 내세우며 자신이 싫더라도 경기 호황을 원하면 자신을 지지하라는 선택지를 제시했다. 지난달까지 이런 단순명료한 전략은 절묘해 보였으나 주가 폭락으로 이제는 자신의 큰소리에 발목을 잡히는 형국이다.

'어, 이게 아니구나' 하는 판단으로 금요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바이러스 검사와 비상지원책을 마련하여 야당인 민주당과 합의하였다. 이렇게 바이러스가 이미 미국의 문제이며 위기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인식과 함께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자 주식시장은 전날의 폭락을 거의 만회하는 급등세를 보였다. 최근까지도 바이러스가 심각한 일이 아닌데 자신을 적대

시하는 언론들이 부풀리고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유권자들의 생각이 금요일 발표로 크게 달라졌는지 의문시된다.

치사율로 보면 그리 위협적이지 않은 바이러스에 왜 선진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공포에 휩싸였을까? 국제적 공조의 리더십 부재가 제일 중요한 이유로 보인다. 전염력이 강한 바이러스가 빠르게 전 세계로 퍼지는 것은 여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들불이 번지는 것과 닮은 상황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곳의 불을 동시에 꺼야 한다. 즉 긴밀한 국제 공조가 필요하다. 과거 국제적 위기 때마다 미국이 주도해서 국제적 공조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의 문제여서 국경을 폐쇄할 것이니 각자 도생하라는 것이었다.

역사적으로 보면 나라 간 사람의 이동이 지금처럼 자유로웠던 것이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 사태가 진정되면 그 전으로 돌아갈 테니 현재의 연쇄적 국경 폐쇄가 대수인가 할지 모른다. 문제는 어떤 상태로 돌아갈 것인가이다. 냉동실에서 만드는 네모

난 얼음은 녹은 물을 다시 얼리면 원상을 회복하기 쉽지만 정교한 얼음 조각은 다르다. 지난 수십 년 동안의 세계화는 큰 얼음 덩어리를 재료로 경제활동이 국제적으로 연결망 형상을 정교하게 조각했다. 국가 간 국경 폐쇄가 빈번해지는 것은 얼음을 녹이는 것, 멜트다운과 같다. 정교한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기 시작하면 형체가 불가역적으로 변형되어 나중에 원상 회복이 불가능해진다. 엄청난 경제적 부가가치가 증발할 수 있다는 말이 된다.

투자자들은 국제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에서 리더십이 실종됐으니 그야말로 얼음 조각이 녹아내리는 최악의 상황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 여러 곳에서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고 있어 머지않아 지금 상황은 종식될 것이다. 하지만 향후 세계경제 질서가 어떻게 변형될지 장담할 수 없다. 열린 세계경제에 기대어 먹고살던 우리에게도 향후 질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그런데 국내 정치권은 유권자 표심을 자극할 돈 살포에만 전념하고 있는 것 같아 걱적이다.

정책발언대



김정렬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영업구역 확대' 신탁법 개정안 문제 있다

최근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는 등의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법사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신탁,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등의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 단위의 풀뿌리 서민금융기관으로서 '관계형 금융'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며, 관계형 금융은 지속적 대고객 접촉을 통해 정성적(비계량적) 정보를 축적하고 해당 정보를 활용해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기법이다. 상호금융기관들은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활용한 정성적 정보 수집에 유리하므로 영리법인인 저축은행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대출이자율을 제공하면서 관계형 금융에 특화돼 있다.

그러나 사실 상호금융기관들이 그간 관계형 금융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등 관계형 금융의 절대적 규모는 증가했지만 담보 위주 대출 관행이 확대되면서 총대출의 양적 성장에만 치중한 나머지 관계형 금융

의 상대적 비중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서민을 위한 관계형 금융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 정부는 결국 담보 기반의 서민대출을 지원하는 상황이 연출됐다. 즉, 저축은행을 포함한 상호금융기관들과 정부가 보증기관에 출연금을 납입하고 보증기관이 동자원을 토대로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햇살론이라는 서민정책금융이 바로 그것이다. 햇살론은 애초 5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할 계획이었다. 서민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상호금융기관들이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고객정보 확보에 주력하고 리스크 관리 역량을 제고한다면 5년 후에는 신용대출로 전환할 수 있다고 예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햇살론은 2020년까지 연장됐고 2020년 이후에도 재차 연장될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상호금융기관들의 관계형 금융 체계 구축 및 관계형 금융 기능 수행은 아직도 미완의 상태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신용협동조합의 영업구역을 시·군·구에서 시·도로 확대하는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에 있어서는 몇 가

지 우려되는 바가 있다.

첫째, 본 법률안은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 육성정책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기본적으로 금융기관의 지역적 영업범위가 넓어지면 지역 기반의 관계형 금융은 현실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어지게 된다. 따라서 신용협동조합의 관계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본 법률안은 규제완화가 긍정적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경쟁력을 갖춘 대형 시·도 금융조합의 탄생을 유도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관계형 금융을 해 온 소형협동조합의 경쟁력 상실을 초래하게 되고 전체 금융기관 간 경쟁격화에 따른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의 실증적 예로 2011년 대규모 저축은행 부실사태를 들 수 있다. 당시 구역 내 영업 제한조치의 완화로 저축은행 간 인수·합병(M&A)이 활성화돼 전국을 영업권으로 하는 대형저축은행이 등장했는데, 이후 해당 대형저축은행에서 부실이 발생하자 산하 자회사였던 지역단위의 저축은행으로 해당 부실이 전이돼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야기하였던 사례가 있

다. 마지막으로, 동 개정안을 기화로 금융기관 간의 규제 형평성 문제가 촉발돼 타 금융기관들도 연쇄적으로 영업구역 확대 등의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상황을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영리법인인 저축은행의 경우 신탁이 세금혜택 등의 각종 특혜를 통해 불공정한 경쟁의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상쇄하는 조치로서 영업구역 확대를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이처럼 관련 금융기관들 모두가 영업 확대를 도모한다면 금융기관 간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크다.

이렇듯 서민금융 확대를 위해 주도한 신탁법 개정은 오히려 서민 대상 관계형 금융의 입지를 위축시키고 상호금융기관 간 과당경쟁에 따른 금융시스템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특히 기존의 관계형 금융 육성정책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므로 신중을 기해 추진되어야 한다. 서민형 금융기관으로서의 신탁의 정체성을 고려한다면, 영업구역의 확대보다는 관계형 금융을 공고히 하는 신규 부수 업무 부여 등의 발전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제임스 매디슨 명언 "인간은 너무도 구제불능이므로 유일한 해결책은 아십을 아심으로 견제하도록 하고, 사익을 사익으로 견제하도록 하는 것 뿐이다."

☆ 미국의 제4대 대통령. 헌법 초안 기초를 맡아 미국 헌법의 아버지'로 불린다. 정치학자로서 영국의 정치철학에 조예가 깊고 그가 헌법호론으로 집필한 '연방주의자 논고'는 미국 정치학의 고전. 그는 오늘 태어났다. 1751~1836.

☆ 고사성어 / 명경고현(明鏡高懸) 높게 매달려 있는 밝은 거울. 시비를 분명하게 따져 판단하는 공정무사(公正無私)한 법관을 비유한다. 출전은 서경잡기(西京雜記). 진시황(秦始皇)이 사람들의 충성심을 비취 보게 한 유명한 거울. 거울 앞에 사람이 서면 거꾸로 선 모습이 나타나고, 기슭을 어루만지며 비취 보면 그 사람의 오장(五臟)이 나타났다. 사람의 나쁜 마음까지도 비취 보았다는 이 거울은 유방(劉邦)의 공격 때 없어졌다고 한다.

☆ 시사상식 / 기축통화(基軸通貨) 국제외환시장에서 금융거래나 국제결제의 중심이 되는 통화. 미국 달러가 이에 속한다. 기축통화가 되려면 전쟁으로 국가의 존립이 문제 되지 않아야 하고, 다양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통화가치가 안정적이며, 고도로 발달한 외환시장과 금융·자본시장을 갖고 있어야 하고, 대외거래 규제도 없어야 한다.

☆ 우리말 유래 / 팔라 동물 코알라에서 온 말. 코알라의 주식인 유칼립투스 나뭇잎에 알코올 성분이 들어 있어 그걸 먹고 매일 알코올에 절어 살아가는 데서 유래했다.

☆ 유머 / 명변호사 자신이 변호한 사람치고 석방 안 된 사람이 없다고 늘 큰소리치는 변호사. 사건 의뢰인을 많이 모으고 이렇게 말했다. "아무리 최악의 경우라도 만기석방으로도 풀려 나왔습니다." 채집/정리: 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 삶 연구소장

기자수첩



유혜은 유통바이오부/euna@

코로나19 위기 속 '젯밥' 찾는 바이오기업

었다. 그간 쌓은 신약 개발 노하우를 살려 단시간 내 치료제를 내놓겠다는 것이 공통된 목표다.

기업들은 코로나19 치료에 쓰일 수 있는 물질을 발견했다거나, 이미 보유한 물질에서 치료 효과를 확인했다는 소식을 앞다투

전하고 있다. 오랜 가뭄 속 한 줄기 단비 같은 뉴스는 자연스레 뜨거운 반응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발 빠른 연구·개발 소식에 과연 국가적 위기를 종식하겠다는 순수한 신념으로만 빛어낸 것인지는 확인이 필요하

다. 일례로 코미팜은 식약처에 '긴급임상시험계획'을 신청했다고 지난달 26일 공시했으나 실제로 이 같은 제도는 없다. 현재 식약처가 코로나19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승인한 약물은 길리어드사이언스의 '렘데시비르'뿐이다. 임상 가능 여부조차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주가만 순식간에 급등했다. 비슷한 사례는 몇 건이고 찾을 수 있다. 바이오 섹터에서 '코로나19 치료제'는 어느새 마법의 단어가 됐기 때문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노력은 가상하지만, 뚜렷하지 못한 기회는 업계 신뢰도를 떨어뜨릴 뿐이다. 국민의 불안과 기대는 이용 대상이 아니라는 당연한 사실을 모든 기업이 다시 한번 염두에 두길 바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무서운 속도로 확산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공포는 지금까지 유행한 어느 바이러스보다 크다. 같은 공간에만 있어도 윽을 만큼 전염성이 높은 반면에 이렇게 할 치료제나 예방 백신이 없는 탓이다.

이에 전 세계의 관심은 치료제와 백신 개발에 쏠려 있다. 세계 최대 임상시험 레지스트리인 미국국립보건원(NIH)의 크리니컬트라이얼에는 지금까지 총 66건의 코로나19 관련 글로벌 임상시험이 등록됐다.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셀트리온을 비롯해 벌써 제약·바이오기업 10여 곳이 뛰어들

일본 뒤통수에 과민반응하는 청와대

사전 협의도 없이 한국인의 입국을 차단한 일본의 행태에 청와대는 단단히 화가 난 모양이다.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 시간에 방송사 카메라까지 불러들이더니 “매우 유감”이라며 듣는 사람 영혼 털리는 소리를 쏟아낸다. 요약하자면 일본이 두 번 뒤통수를 쳤다는 이야기다. 뉘에뉘에...

이제 지금 두려움에 떨며 집으로 향하는 시민들 퇴근길에 전해야 할 소식인지 현타가 밀려든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남의 다리 굽는 정부를 “감수성이 의심스럽다”며 질타한 적이 있다. 그런데 요즘 청와대를 보고 있으면 오히려 대통령의 감수성에 의문이 생겨난다.

마스크 없다고 질타하는 자리에 마스크를 쓰고 등장한 대통령은 장관들에게 “마스크가 있는지 직접 확인하라”고 했다. 그런데 1953년생인 문 대통령은 공적 마스크 구매가 가능한 날이던 11일 약국에 가지 않았다. 물론 문 대통령의 성정상 꼭 필요한 국민에게 자신의 마스크를 양보했을 것이다. 설마 돌팔매 날아들까 경호를 격정한 것은 아닐 테고, 대통령이 제 먼저 살겠다고 약국 앞에 줄선 풍경도 모양 빠지는 일일 테다. 하지만 적어도 대통령이 나타날 약국에는 미리 마스크 깔아놓고 공급이 원활한 척이라도 할 테니 몇십 명이라도 망극한 성은을 입지 않았을까.

참모들을 통해 전달받은 국가 상황이 실제와 다름을 눈치챘다면, 그래서 “현장을 확인하고 오라”고 역정까지 내야 할 지경이라면 한 번쯤 스스로 나가 보는 것은

데스크칼럼

정 일 환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어떨지. 방역현장이나 마스크공장처럼 안가는 게 도움인 곳 말고, 자신의 판단 실패로 인간다운 삶을 빼앗긴 소시민들을 뺀 속까지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나타났으면 한다.

섬나라 왜구의 수작질이 그리 중한가. 관심 좀 달라는 김정은의 불꽃놀이에도 눈길이 가지 않는 판국에 침팬지 수준의 험한 정치가 청와대까지 나서야 할 일인가. 흑사라도 험한을 역이용해 총선 앞둔 국내 정치에 써먹을 셈법이라면 차라리 호연지기나 발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지도 모른다. 청와대의 유감 응양용 대신 하급 관료가 나서 “와달라 빌어도 안 가니 니들 방역이나 신경 쓰세요. 시간 되면 방사능도 좀 치우고” 했다면 속이라도 후련했을 것을.

나이 먹었다고 어른이 아니며 지위 높다고 리더가 아니다. 먹은 게 나이뿐이라면 끈대이고 죽창 들라 선동이나 해대면 보스일 뿐이다. 일본엔 부들부들, 북한·중국엔 살살 늙는 리더십으로는 국격이나 글로벌 리더십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유럽의 중세시대 영주들이 유독 높은 언덕에 성을 지은 까닭을 들은 적이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전쟁에서 지리적 우위를 점하기 위함이다. 물론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권위를 과시하려는 목적도 있다. 그런데 첫째 목적인 전쟁에서의 지리적 우위는 반대로 영주의 목을 겨누는 칼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영화에서 보듯 전투가 불리해지면 성 안으로 주민들을 대피시킨 뒤 문을 굳게 닫고 농성에 들어가는 데, 이렇게 되면 영주는 도망갈 길이 끊긴다. 성문이 뚫리면 최후의 결전이 시작되고 영주는 끝까지 싸우다 죽음을 맞고, 이때 전투가 끝나는 것이 원칙이었다. 나머지 지를 살려 뒤야 새로 얻은 영지에서 세금을 걷을 수 있어서다.

어찌 보면 허망한 이 결말이 백성들이 충성과 세금을 바치는 이유였다고 한다. 유사시 성은 자신들의 목숨을 지켜줄 마지막 보루이며, 영주는 주민들을 살리기 위해 맨 앞에서 싸우다 죽을 것이라는 약속이다. 계급사회이면서 동시에 냉정한 계약사회였던 셈이다.

“마스크는 충분하다”더니, 일이 커지자 “사화에 하나면 충분하다”며 태세전환한 대통령을 둔 입장에서 중세 영주의 계약사회가 부러우니 진 거다.

하긴, 우리가 언제 나라 덕에 이 정도라도 살았던가. “기다리라”는 말 믿었던 학생들의 희생 덕에 탄생한 정권이 또 “기다리라” 하니 이번에도 우리 알아서 살아낼 테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다만 아직 끝나지도 않은 일을 두고 “외국도 칭찬하는 방역시스템”이라며 미리부터 자화자찬하는 선부름도 다시 생각해 보길 바란다.

whan@

시설

추경에만 기대지 말고 경기부양 모든 대책을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으로 글로벌 경제가 급격히 후퇴할 것이란 우려가 갈수록 커진다. 주요 경제연구기관들의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낮아지고 있다. 팬데믹이 조기에 진정되지 않으면 마이너스 성장을 배제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15일 블룸버그가 글로벌투자은행 등의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집계한 자료에서, BMO캐피털은 한 달 전의 2.7% 전망을 2.0%로, 독일 베렌버그는 2.3%에서 1.8%로 하향했다. 영국 경제분석기관인 캐피털이 코노믹스는 3.0%에서 2.0%로 내렸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세계 경제성장률을 종전 2.5%에서 1.7%로 떨어트렸다. 앞서 국제금융협회(IIF)도 전망치를 2.6%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인 1.0%로 낮췄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를 밑돌면 경기침체로 본다. 이들 전망치도 대부분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의 팬데믹을 선포하기 이전에 나왔다. 앞으로 더 낮아질 공산이 크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달 전망했던 올해 세계 성장률 2.4%를 최근 2.0%로 내리면서, 팬데믹의 경우 역성장(-0.1%)에 빠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는 ‘세계의 공장’인 중국을 강타한 데 이어, 지구촌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유럽 각지의 확진자 수가 폭발적인 증가세다. 미

국은 영국을 제외한 유럽 26개국에서 입국을 13일부터 금지하는 극약처방까지 동원했다. 초유의 사태다.

공포심리의 증폭으로 글로벌 금융 시장은 지난주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보다 더 큰 충격을 받았다. 소비와 생산 등 실물경제 피해도 얼마나 커질지 가늠하기 힘들 정도다. 과거 금융위기 이상으로 심각한 ‘대공황’ 우려까지 나온다. 각국의 잇따른 ‘비상사태’ 선언과 함께, 국가와 지역 간 이동통제가 경제활동의 마비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장 큰 문제는 전염병이 언제까지, 어느 정도로 퍼질지 여전히 예측할 수 없다는 점이다. 시장의 공포를 키우는 최대 불확실성이다. 세계 경제 후퇴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 경제에 직격탄이다. 글로벌 공급망 붕괴와 시장 위축으로 인한 제조업 추락은 말할 것도 없고, 항공·여행·숙박·유통·외식 등 서비스업 타격으로 내수가 더 가라앉는다.

경제위기가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경기부양을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대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한국은행 또한 금기준리를 낮출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으로 역부족이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을 막기 위한 금융지원의 신속 집행, 기업활력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감세(減稅), 노동 및 투자 관련 규제의 과감한 제거 등 비상한 정책처방이 급하다.

구성현의 약자지결



자본시장1부 차장

‘기울어진 운동장’, ‘악의 축’, ‘가진 자들을 위한 파티’.

투자자들이 공매도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표현들이다. 이처럼 부정적인 표현이 압도적인 이유는 국내 증시에서 공매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철저히 배제돼 있는 시장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주식 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103조5000억 원 중 개인 투자자 거래대금은 1조1000억 원으로 1.1%에 그쳤다. 반면 외국인 투자자 거래대금이 약 65조 원으로 62.8%, 기관 투자자는 37조 3000억 원으로 36.1%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주가가 약세장을 면치 못하자 공매도에 베팅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은 말 그대로 춤을 쳤다. 한국거래소 공매도종합포털에 따르면 12일 주식시장의 공매도 거래대금은 1조854억 원으로 연중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9일 기록했던 기존 연중 최대치(1조806억 원)를 넘는 수치다.

‘사후약방문’ 공매도 대책

12일과 13일 증시에서는 사상 최초로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크가 발동되는 등 급락장도 연출됐다. 이 같은 상황에 공매도 세력이 기승을 부리면서 개미들의 피해가 예상되자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더욱 거세졌고, 정부는 10일 마지못해 공매도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지만 효과는 ‘하루’에 그쳤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공포로 주식 시장에서 연일 폭락장이 연출되면서 당국의 대책은 전혀 약발이 없었던 셈이다. 다시 시장에서는 폭락장에 대응해 한시적으로라도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쳤고, 정부는 다시 3일 만에 공매도를 6개월간 전면 금지하는 대책을 내놨다. 이에 따라 16일부터 6개월 동안 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금지된다.

이 같은 초강경 대책에도 시장에서는 ‘너무 늦었다’는 불멘소리가 나온다. 이미 국내 증시는 3거래일 동안 폭락하면서 수많은 증시 기록을 갈아치웠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시장에 서킷브레이크가 발동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시장의 70%를 차지하는 개미투자자들은 망연자실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금융당국은 대통령의 ‘고강도 경제대책’에 대한 재근을 받고서야 대책을 내놨다.

금융당국의 입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가격 형성 기능이나 헤지 수단이라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완전히 부정하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초 목적과는 달리 공매도가 세력의 장난감으로 변질되고 있는 현실을 그동안 애써 외면해 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그간 공매도의 순기능보다 이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빈번해 공매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던 사실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대응책을 내놔서 다행이지만 한발 늦었다고 본다. 최근 폭락장으로 입은 개인투자자들의 피해가 적지 않다.

정부 당국자들은 “(공매도 금지가) 그렇게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 왜 증시가 폭락한 후에야 대책을 내놓느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를 곱씹어 봐야 할 것이다. carlove@

같은 우리말 한 토막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방송, SNS 등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다. 그런데 이는 맞춤법에 맞지 않다. ‘빌어’ 대신 ‘빌려’라고 고쳐야 옳다.

많은 사람들이 ‘빌다’와 ‘빌리다’를 혼동하는 이유는 뭘까. 오늘날 ‘빌리다’의 정의가 예전에는 ‘빌다’에 해당했기 때문에 단어 정의 변화에서 오는 혼동일 수 있다. 원래 ‘빌다’는 임차(賃借)·차용(借用), ‘빌리다’는 임대(賃貸)·대여(貸與)의 의미로 구분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 같은 의미 구분이 인위적이고, 무엇보다 실제 언중은 차용의 뜻으로 ‘빌다’가 아니라 ‘빌리다’를 많이 사용하였다. 이러한 언어 현실을 반영해 1988년 한글맞춤법 개정 이후 ‘빌다’를 버리고, ‘빌리다’만 표준어로 취하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빌다’가 원래 갖고 있던 차용 의미는 ‘빌리다’가, ‘빌리다’가 원래 갖고 있던 대여 의미는 ‘빌려주다’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다. 결국 ‘빌다’는 차용의 의미는 잃게 되었지만, 단어 자체가 비표준어는 아니다. ‘빌다’는 ‘바라는 바를 이루게 해 달라고 간

빌다와 빌리다

청하다’ 또는 ‘남의 물건을 공짜로 달라고 호소하여 얻다’는 뜻이 있다. “소원을 빌었다” “집집마다 다니며 음식을 빌었다”와 같이 쓸 수 있다. 또,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다”처럼 “잘못을 용서하여 달라고 호소하다”는 의미도 있다.

첫머리에서 언급한 ‘이 자리를 빌어’에서 기본형 ‘빌다’는 앞선 설명처럼 예전에는 ‘빌리다’의 의미였으므로 언중이 헷갈릴 수 있다. 하지만 한글맞춤법 개정을 통해 그 의미는 사라졌으므로 ‘빌어’라고 하면 틀린다. ‘빌리다’는 차용의 의미뿐 아니라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기회를 이용하다’의 뜻도 있다. 따라서 ‘마침 마련된 기회를 이용해 하고자 하는 바를 밝히다’는 뜻으로 쓰고자 할 때에는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와 같이 써야 맞다.

‘빌다’와 ‘빌리다’의 쓰임이 헷갈린다면 ‘값음의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빌다’는 공짜로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값을 필요가 없지만, ‘빌리다’는 남의 것을 되돌려주기로 약속하고 쓰는 것이므로 반드시 값이 필요하다.

신미라 편집부 교열팀 차장 kleinkind@

이투데이 뉴스를 풀어줍니다, 경제가 쉬워집니다. 24시간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SAMSUNG



응~건조기 중엔 나만 1등급이야
2등급 사면 후회한다!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받았다며?

국내유일 건조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삼성 그랑데^{AI}답게

세탁에서 건조까지 하나되어 맞추다



세탁기 패널에서
건조기까지 편리한 조작
[올인원 컨트롤]



세탁 완료된 코스와
가장 적합한 이불 코스를
추천드려요
[AI 코스연동]



우리집 세탁-건조 패턴에
맞춰주는
[AI 습관기억]



세탁에서 건조까지
정확하고 빠르게
[세탁에서 건조까지 36분]



친절하게
글자로 알려주는
[대화형 알림창]

삼성 그랑데^{AI}

* 올인원 컨트롤 모델은 직렬설치 권장이나, 병렬 설치도 가능

* AI 코스연동은 삼성 SmartThings 앱 내 건조기 탭에서 'AI 코스 연동' 기능 사용을 설정해야 하며, 세탁기, 건조기 모두 SmartThings 내 같은 장소에 등록된 경우에 사용 가능함, 세탁기 종료 시점에 건조기 전원이 연결되어 있어야 함

* 세탁-건조 36분 - WF2**T**00K* 셔츠코스 세탁 시간 17분, DV16T*7*** 셔츠코스 건조시간 19분 - 상온 조건에서 간벌셔츠 1벌(폴리에스테르 65%/면35% 조합) 세탁/건조 결과임 - 자사 시험법에 따른 KATRI 시험치로 실 사용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국내유일 건조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 20년 3월 5일 한국에너지공단 의무건조기 품목 신고 기준, 일부 모델 제외